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3월 14일)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열암곡 마애불 입불 韓불교 역량 총집결

조계종, 4월 28일 마애불 입불 천일기도 입재법회

"고행이 있어도 바로 세우리" 사부대중 600명 운집해 서원 진우 스님, 기도 동참 당부해

경주 남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 입재는 한국불교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며, 사회와 역사와 함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불제자로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위한 한국불교 전체 원력 결집이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4월 28일 경주 열암곡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입재법회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 자문위원장 용산 법등 대종사, 불국사 회주 대궁 종상 대종사, 불국사승가대학원장 일해 덕민 대종사, 은해사 회주 송천 돈명 대종사,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과 능종(동화사)·장명(직지사)·덕조(은해사)·종천(불국사)·혜일(해인사)·보운(범어사)·현덕(통도사)·등운(고운사) 스님 등 경상 지역 8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경주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운집했다.

진우 스님은 입재사를 통해 마애불 입불을 위한 사부대중 원력 동참을 당부했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불교중흥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천년을 이루겠다는 서원의 출발"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1000일 기도 의미에 대해 "자기 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지나온 삶에 대한 참회이자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과 함께하겠다는 발원"이라며 "어떠한 난행고행이 따르더라도 엎드려 계신 부처님을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바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간절한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도정진력에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다 함께 수희동참해달라"고 불자와 국민에게 요청했다.

법등 대종사와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등 내외빈들은 부처님을 바로모시는 1000일 기도 입재를 축하했다. 법등 대종사는 축사를 통해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불사의 참 뜻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를 잇는 생명줄이요, 전통문화를 바로 세우는 종도들의 책무"라며 "사부대중이 너나없이 동참해 신심깊은 원력으로, 우리의 미래불교를 세운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일체중생의 이고득락을 함께 발원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능종 스님은 축사에서 "이 같은 대작불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주 인근의 교구본사들이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구장스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됐던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겠다고 서원했다. 사부대중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불사"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천일기도는 발원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치열한 수행정진으로 다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입재법회에서는 열암곡 기도법사 단장과 법사가 위촉됐다. 진우 스님은 기도법사 단장 환풍 스님, 기도법사 선우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28일 경주 열암곡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국보 '수마노탑등' 광화문 불 밝히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봉축 장엄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을 밝혔다. 광화문 광장에 점등된 장엄등은 5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서울시민들에게 전한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는 4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광화문광장을 한 달여 간 빛낼 봉축장엄등은 지난 2020년 국보로 지정된 강원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형상화했다. 크기는 가로 11m 세로 11m, 높이 20m(탑 18m, 좌대 2m)로 국적, 인종, 연령의 차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수마노탑을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직영 아미타요양병원 5월 3일 문 연다

사부대중 500여명 동참 예정 5년간 매년 5억 원 운영지원 비구니 스님 간호 인력 투입 대종사 등 후원 동참 이어져

조계종 직영 승려 전문 아미타요양병원이 5월 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호산, 조계종 총무부장)는 4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승려전문 아미타요양병원 개원식과 함께 운영방침 등을 발표했다.

5월 3일 오후 2시 개최될 개원식에는 사부대중 500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개원식은 불교의례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법인 명예 이사장 자승 스님 치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행사,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공로패 수여, 칠장사 합창단의 축가가 준비됐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의 축하말씀도 이어진다. 이어 후원금 전달과 감사패 수여, 떡케이크 절단 및 나눔식으로 마무리된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올해 3~4월 1차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4층에 스님 전용 병실 10개와 휴식 공원을 조성했다. 스님들이 고급스럽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부터는 건물 2~3층 일반병동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 승려 전문요양병원으로 명실상부 제 모습을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승려복지회장 호산 스님은 "병원 수익보다는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추후 임종에 따른 다비식 등 장례문화 개선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관심과 봉사, 후원이 이어져야 한다"며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각계각층의 정성으로 이뤄낸 병원이 스님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전문요양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는 조계종 스님들이 우선 입원할 수 있다. 기반이 잡히면 이웃 종단 소속 스님과 재가불자들도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으로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비구니 스님 1명을 영입한 상태며 추후 스님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최근 병원불자연합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한 상태다.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조계종이 처음 직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만큼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승려복지회에서 5년간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특히 80평 상 규모의 제 2병동도 추가 건립, 265병상 규모의 병원을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식을 앞두고 사부대중은 요양병원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정우 스님, 성운 스님, 돈명 스님 등 올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이 요양병원을 위해 정성을 모으고 있으며 포교원장 범해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삼조 스님, 김정훈 페데스탈 대표, 사찰 주지 스님과 단체 및 신도들이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했고 전기운반차, 쌀, 생수 등 물품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모태는 2008년 각현 스님이 개원한 파라밀요양병원이다. 2018년 삼천사 성운 스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문요양병원으로 발전했고,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종단 직영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과 결단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운영 계획에 나섰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려복지와 요양병원에 대한 원력이 실현되면서 마침내 아마타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다.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2만 6363m² (7975평), 건물 8492m² (2569평)로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 령

명)총괄부국장 **박 재 완**
2023년 4월 25일 부
이상 1명



“불조혜명 이어 성불 이르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 봉행

4월 27일 통도사 금강계단 일원서
대종사 47명, 명사 33명 법계 품서
성파 대종사 “삼보 원력 증장 계기”
아미타병원에 1억 4000만원 쾌척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 최고 법계이며 수행의 상징인 대종사와 명사 스님 80명이 탄생했다. 특히 이날 대종사 및 명사 품서를 받은 스님들은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승려복지기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4월 27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불기 2567년 대종사 · 명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하고 대종사 47명과 명사 33명 총 80명에게 법계를 품서했다.

대종사 법계 품서를 받은 스님은 운성 · 법혜 · 대운 · 동봉 · 지정 · 혜문 · 성학 · 동욱 · 정휴 · 대성 · 현일 · 무상 · 혜성 · 성운 · 진관 · 양산 · 기연 · 중하 · 성춘 · 태원 · 현문 · 지준 · 효담 · 명신 · 법보 · 향적 · 정우 · 수인 · 도업 · 돈명 · 지환 · 성일 · 정찬 · 종성 · 석구 · 성중 · 보광 · 종림 · 여연 · 법진 · 현묵 · 영진 · 성연 · 영명 · 현전 · 무상 · 청안 스님(승납 순)이다.

명사 법계 품서를 받은 스님은 문수 · 성근 · 일현 · 지우 · 덕운 · 적조 · 순행 · 명신 · 백졸 · 광옥 · 동희 · 진흥 · 태연 · 정원 · 대우 · 경옥 · 일경 · 현종 · 종인 · 수현 · 도혜 · 효경 · 성우 · 현정 · 계호 · 진성 · 희원 · 화정 · 성법 · 종선 · 재호 · 선공 · 도문 스님(승납 순)이다.

품서식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대종사 · 명사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하고 법어를 설했다.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예부터 시행된 법계는 출가 수행자의 수행력과 권위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의 기본”이라며 “종단 비구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는 일평생의 수행 정진과 교화덕행의 결정으로 모든 종도들이 귀의하고 찬탄하는 결정체이다. 이는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며 공경과 선망의 표상”이라고 찬탄했다.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 후 대종사 품서자 스님들과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 후 명사 품서자 스님들과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어 “여러 대종사 · 명사의 출현으로 종도들은 삼보에 대한 원력을 키우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청정승가를 유지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법계증은 대종사를 대표해 무상 스님이, 명사를 대표해 진성 스님이 받았으며 25조 대가사는 정우 스님과 계호 스님이 받았다. 가사를 수여 받은 스님들은 종정예하가 수여한 대가사를 이마에 올려 정대하고 가사를 새롭게 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도자의 상징인 불자와 자비의 상징인 여의를 대종사를 대표해 성운 스님에게 봉정했으며, 명사 법계 품수자를 대표해 대우 스님에게 여의를 증정했다.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80인의 대종사, 명사의 탄생을 경축했다. 진우 스님은 “종도들의 사표이신 대종사님과 명사 스님들께서는 종강(宗剛)을 바로 세워 대중이 화합하고 조계종풍이 선양되는 데 일심으로 정진해 오셨다”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법(正法)의 당간지주를 드높여 불조의 혜명이 면면히 계승될 수 있도록 후학을 이끌어 주시기를 양망한다”고 서원했다.

이어 “종단의 소임자들 역시 더욱 발심해 화합하고 정진하는 종단, 혁신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대종사 · 명사 품서 스님들은 품서식에서 승려 노후복지를 위해 5월 3일 정식 개원하는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후원금 1억 4000만 원을 쾌척했다. 후원금은 송천 돈명 대종사, 아산 정우 대종사, 중산 향적 대종사, 중천 성운 대종사, 무심 보광 대종사, 해광 무상 대종사, 이산 현문 대종사와 태연 명사, 효경 명사, 계호 명사, 진성 명사가 전달했다.

품서식에 앞서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승려복지기금을 기부한 스님의 뜻과 승려복지의 중요성을 전했다.

호산 스님은 “개원을 앞두고 대종사, 명사스님께서 큰마음을 내주시어 감사하다. 스님 전문요양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을 나눔으로 열어주셔서 많은 힘이 된다”며 “현재 아미타요양병원은 스님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리모델링 중이다. 오늘 대종사, 명사스님들의 나눔은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이 가능하도록 병원을 희사한 삼천사 주지 중천 성운 대종사는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스님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이라며 “오직 승려복지를 위한 요양병원으로서 의미가 크다. 사회복지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수행자로서 일생일대의 행복”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진우 스님 “강릉 산불 이재민 일상회복 기원”

조계종, 4월 21일 강릉 위로 방문
강릉 산불 피해 성금 2억 원 전달
산불로 전소된 인월사 찾아 위로해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4월 21일 강릉시 산불피해 수습 행정지원실 및 이재민 임시대피소로 활용되고 있는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날 위로 방문에는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중앙종회의원 설암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단주를 선물하며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후 대피소 상황실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현재 피해 상황을 브리핑 받은 진우 스님은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 복구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4월 21일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조계종 위문단이 전소 피해를 입은 인월사를 찾아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은사 스님부터 현재까지 45년을 일군 사찰이 전소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총무원과 지역 교구본말사, 전국비구니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인월사는 1979년 한 필지로 시작해 45년동안 현재의 가람을 일궜다. 이제 다시 부처님이 가람을 잘 장엄해보라는 숙제를 주신 것 같다”면서 “다시 이전의 도량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인다는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인월사는 지역에서 포교,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불가에는 ‘도고마성(道高魔盛)’, ‘도가 높으면 마장이 극성을 부린다’는 말이 있다. 인월사가 더 좋은 가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 재범 스님은 종단과 지역 사찰, 전국비구니회에서 연이어 자비의 온정을 전하는 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재범 스님은 “은사 스님부터 현재까지 45년을 일군 사찰이 전소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총무원과 지역 교구본말사, 전국비구니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인월사는 1979년 한 필지로 시작해 45년동안 현재의 가람을 일궜다. 이제 다시 부처님이 가람을 잘 장엄해보라는 숙제를 주신 것 같다”면서 “다시 이전의 도량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인다는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릉=신성민 기자

한중일불교대회 11월 서울서 열린다

한중일불교대표단 4월 25일 예비회의서 합의

11월 6~8일 봉은사 일원서 개최
‘인류 상생 위한 불교 역할’ 주제

한국과 중국, 일본불교의 ‘황금유대’를 확인할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동안 순연되다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4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튤립룸에서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예비회의’를 열고 대회 일정과 주제 등 전반을 확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불교대표단은 회의를 통해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 봉은사와 인터내셔널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키로 했다. 대회 주제는 ‘인류사회 상생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이며, 부제는 ‘4차 산업시대 불법홍포를 위한 삼국 불교도의 역할’이다. 참가인원은 각국 불교도 100명으로, 총 300여 명 규모다. 대회는 △환영만찬 △법회 평화기원문 △학술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4월 25일 제23차 한중일불교교류우호대회 예비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계는 불교우호교류대회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발원 등을 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중국 주해에서 열린 제22차 대회 이후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2020년 열려야 했던 제23차 한국 대회도 3년 간 순연됐다.

한국교류위원단 단장 도각 스님(종단협 사무총장, 관음종 부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동아시아 삼국 불교의 빛나는 황금유대의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성남 봉국사 주지 혜원 스님 임명

4월 26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직할교구 성남 봉국사 신임 주지에 혜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봉국사 주지 혜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봉국사는 성남에서 가장 큰 절이다. 그런 중요한 사찰의 소임을 맡은 만큼 성남지역 전법포교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주지 소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봉국사 주지 혜원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9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봉국사 총무와 부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을 위한 자료 기증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학교법인광동학원 설립자 운허스님께서는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을 주도하신 공로로 「문화훈장」을 받으셨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공덕으로 「독립운동 공로포장」을 수상하셨으며, 다수의 학교를 설립하시어 후학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우셨던 교육자셨습니다.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이한 광동학원은, 대강백이시며 구국의 영웅이시고 교육자로서 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하신 운허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운허역사자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운허스님의 교육 입국 정신을 계승하고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불교 종립학교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운허스님의 교육과 전법의 위대한 업적을 후학들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자료관에 전시할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증 기간 2023년 4월 ~ 수시로

기증 방법
※ 우편물일 경우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광동1길 10 광동학원 법인사무국
※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연락주시면 찾아가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증 장소 학교법인 광동학원 법인사무국(031-570-6611~2)

산하 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광동중학교

기증 자료
1) 운허스님 관련 저서와 글, 유품, 물품,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2) 학교법인 광동학원 관련 저서와 글, 물품,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학 교 법 인 광 동 학 원 이 사 장
대한불교조계종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초 격 합장



해방이 되어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니
학교를 설립하자!
—설립자 운허 큰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의 강점은 단연 ‘명상 교육’ 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정신의 근육, 마음의 힘줄을 단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명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 교육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4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국대의 강점을 불교를 기반한 ‘명상 교육’ 임을 분명히 했다. 명상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자아 성찰을, 전공 · 실무교육으로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인재로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른 인성과 강인한 정신력, 실무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게 윤 총장이 추구하는 교육관이다.

윤 총장의 교육관의 바탕에는 ‘불교’ 가 있다. 실제 그는 총장 선거 공약으로 ‘불교교육학 정립’ 을 내세웠고, 선출 직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을 때에도 “불교교육학을 정립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불교교육학 정립’ 은 윤 총장이 불자이자 교육자로 현장을 살아오며 느꼈던 문제점들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1981년 동국대에 입학해 불교를 접하고 배웠습니다. 그 이후 동국대에서 신행활동하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불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는 방법론이 부재해 발생했습니다. 매년 동국대에는 2778명의 학생들이 입학합니다. 이중 4년 뒤 불자로 졸업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당장 매년 입학하는 2700여 동국인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 불교 인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개신교는 ‘기독교 교육학’ 이라는 학문분야가 있고, 가톨릭도 ‘교리 교육학’ 을 통해 교리 교육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윤 총장의 지적처럼 불교만 현대적인 교육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불교학에 현대적 교육학을 접목해 ‘불교교육학’ 을 정립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윤 총장은 올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조직을 만들고 불교학과 교육학의 융합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월 25일 기자들을 만난 윤재웅 총장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조계종립 동국대 근본은 ‘불교’
마음 힘줄 키울 명상교육 강화
불교교육학 정립 · 보급에 역점
‘상월결사 108 원력문’ 대중화
매달 11일 ‘합장데이’ 선포 계획
재학생들의 ‘불교 일상화’ 추진

“초등-중등-고등교육에 이어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위계 · 특성별 어떻게 가르칠지, 학습 수용자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가르칠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불교교육학’ 입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불교학, 교육학 전문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야 할 과제죠. 종단 교육원과 포교원과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불교교육학을 정립하는 것은 최근 대두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라는 원력의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건학위원회가 신규 핵심사업으로 지정한 ‘청년불자 양성’ 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재학생들에 대한 ‘불교의 일상화’ 에 초점을 맞출 계획을 갖고 있다. 합장의 생활화를 위해 ‘합장’ 을 동국대 공식 일상 인사법으로 공포하고 매월 11일을 ‘합장데이’ 로 지정 운영키로 했으며, 공양기도문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내 모든 공양 장소에 ‘공양기도문’ 을 게시하고 음원 제작 · 홍보, 동참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상월결사 108원력문’ 보급 및 대중화를 추진한다.

“저는 합장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동작이라고 봅니다. 불교종립 동국대 구성원이라면 합장의 일상화는 필요합니다. 불교 전법 실천운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양기도문 보급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뤄질 계획입니다. 생활 속에서 상월결사 108원력문을 쉽게 접하고 대중화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화하고 교내 108배 정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말미, 윤 총장은 스스로를 ‘과정적 존재’ 라고 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자신은 발전의 씨앗만을 뿌려도 되며, 열매는 자신의 임기 뒤에 거둬도 상관없다”고도 했다. 그렇기에 윤 총장은 동국대가 대학평가 5위에 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다. “발전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의 교육환경은 29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평가가 5위에 오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향후 동국대는 규모의 경제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 · 소대학들과의 입수합병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수 교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선투자가 필요하죠. 이를 통해 동국대가 발전하는 대학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것, 그것이 제 총장 임기동안의 목표입니다.”

동국대 이사에 덕문·삼조 스님 선임

제349회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자광, 돈관, 덕문스님 기금 전달


덕문 스님


삼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 덕문 스님과 삼조 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4월 26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49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 이사 13명 중 1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덕문 스님과 우송 스님의 후임 이사를 선출했다. 동국대 승려 이사 후보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2배수로 후보를 추천받고, 중앙종회에서 이를 승인해 추천된다. 지난 4월 4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는 덕문 · 대진 스님(덕문 스님 후임)과 삼조 · 본원 스님(우송 스님 후임)이 각각 복수 추천됐다.

이날 이사회는 덕문 스님 후임으로 덕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으며, 우송 스님 후임으로는 삼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들 스님들의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이다.

선임 직후 덕문 스님은 “소임을 계속 반복해 맡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이사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는 신임 이사 종호 스님과 신임 감사 도림 스님을 각각 교육위원회와 의료위원회에 각각 배정키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정관 변경 △정관 시행세칙 변경 △교원 인사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2022회계연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 △기금 용도변경 승인 △경주병원 불용자산 폐기(매각) 승인 △학과 · 대학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1000만 원을, 이사장 돈관 스님이 5000만 원을, 이사 덕문 스님이 3000만 원을 각각 쾌척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3월 이후 윤재웅 총장이 취임하는 등 학교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며 “저 역시 지난 3월부터 이사장 소임을 맡게 됐다. 이사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귀를 기울일테니 아낌없는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제1회 글로벌 부디스트 서밋 참가

4월 20~21일 뉴델리서…정범 스님 참석

IBC(세계불교연맹, 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가 주최하는 국제불교정상회의(Global Buddhist Summit)가 4월 20~2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다. 한국불교를 대표해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사진〉



뉴델리에 위치한 아쇼카 호텔에서 열린 이번 국제불교정상회의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키샨 레디 인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등 약 30개국에서 500여 명의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이번 불교정상회의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불교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 모디 총리는 인사말에서 쿠시나가르와 룸비니에서 진행 중인 불교성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현재의 국제적 갈등과 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 토론 세션에서는 환경위기와 지속 가능성, 나란다 불교 전통 보존, 현재 세계에서의 부처님 법의 필요성과 보존, 승가의 시대적 역할 등을 주제로 학자들과 스님들이 발표와 토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불교정상회의에는 한국 대표단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을 대리해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이 공식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다. 정범 스님은 세계 각국 불교 대표들과 만나 불교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불교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각 국가 간의 불교의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상회복 후 첫 대규모 연등회…10만 연등 물결 '기대'

연등회보존회, 5월19~21일 연등회
5월 20일 동국대 '어울림 마당' 후
흥인지문서 종로 거쳐 조계사까지
5만 명 행렬 동참…10만 연등 켜져
일반시민 선착순 250명도 참여가능
서울시·경찰청 협조 안전대책 마련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연등행사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5월 19~21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성대하게 진행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4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연등회 일정을 공개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올해 연등회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며 약 5만 명이 참가, 10만 연등이 종로를 수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통등전시회

5월 11~28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전통등 전시가 진행된다. 서울 도심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연꽃등, 단체 행렬등, 장엄등 등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또 세종대로에는 가로 연등을 설치, 봉축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사와 우정국로 등 거리에서도 전통등이 전시되며 서울 봉은사에서는 5월 5일~6월 6일 전통등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어울림마당&연등행렬&대동한마당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는 5월 19~21일 개최된다. 연등행렬에 앞서 연등회 노래에 맞춰 흥겨운 춤사위를 펼치는 어울림마당이 5월 20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어울림마당 연희 율동프로그램 명칭은 연희누리로,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선정됐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율동이 진행된다.

어울림마당에 이어 오후 7시부터 60여 개 단체들이 정성껏 만든 수만 개의 행렬등과 장엄등이 흥인지문을 거쳐 종로 일대, 조계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선두 장엄등은 사물등이다. 중생제도를 상징하는 불교사물등은 법고등, 범종등, 운판등, 목어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생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장엄등과 행렬등도 연등행렬에 참여한다.

원활한 행렬을 위해 종로 거리는 전면 통제된다. 관람객에게는 행렬을 맞이하기에 앞서 15개국 20여 명으로 구성된 '연등회 친구'와 봉은사 연희단, 한풀의 공연이 제공된다.

올해는 참가단체 이외에 시민 문화체험단도 행렬에 함께한다. 대한불교청년회를 통해 선착순 250명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연등행렬에도 동참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연등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연등회는 생방송으로 홈페이지와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연등행렬이 마무리되는 9시 30분부터는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한마당이 진행된다. 대동한마당은 행렬을 마친 대중과 시민들이 함께 노래와 강강술래 등으로 진행되며 꽃비로 마무리된다.

전통문화마당

전통문화마당 및 공연마당은 5월 21일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조계사 앞과 우정국로에서 진행된다.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확대 진행된다. 전통문화마당에는 사찰 햄버거와 같은 사찰 음식 먹거리, 문양으로 만나는 불교 미술 체험, 연등행렬과 예불 등 한국불교 VR체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공평사거리 공연무대에서는 길놀이, 승무, 풍물, 연등회 노래, 음악연주, 국악, 어린이 공연, 북청사자놀음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우정공원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꽃등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연등회는 5월 21일 저녁 7시부터 인사동과 종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소규모 연등행렬로 마무리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등회를 즐길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연등회 사무국장 선효 스님은 "서울시와 경찰청의 협조를 구해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등회 기간 동안 종무원 등 1000여 명의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 만일의 사태를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등회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축제다.

불기 2567년 연등회 주요행사

행사명		일 정	비 고
봉축 점등식		4월 26일(수) 오후 7시 (점등기간:4월 26일(수) ~ 5월 28일(일))	광화문광장 / 유튜브 생중계
가로연등		4월 26일(수)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5월 11일(목) ~ 5월 28일(일)	광화문광장, 우정공원, 조계사, 봉은사 등 – 장소에 따라 상이함 –
전통등전시회	광화문광장 전통등전시회	5월 11일(목)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등간 전시	5월 10일(수)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우정공원 전통등전시회	5월 11일(목)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조계사 전통등전시회	5월 11일(목)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봉은사 전통등전시회	5월 5일(금) ~ 6월 6일(화)	
어울림마당		5월 20일(토)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
연등행렬		5월 20일(토) 오후 7시	흥인지문 ~ 종각
대동한마당		5월 20일(토) 오후 9시30분	종각
전통문화마당 · 공연마당		5월 21일(일) 정오 ~ 오후 6시	조계사 앞길
연등놀이		5월 21일(일) 오후 7시 ~ 9시	인사동, 조계사 앞길
봉축법요식		5월 27일(토) 오전 10시	조계사 및 전국 사찰
모바일게임 랜턴마스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	

- 연등회 홈페이지 : www.llf.or.kr / www.연등회.kr
- 연등회 SNS : 유튜브 www.youtube.com/lotuslanternfestival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tuslanternfestivalseoul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lotuslanternfestival

불교상담개발원, 불교명상으로 국민 힐링 선도

4월 24일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마음치유 2개 사업 공개

5월 1일~31일 자살예방 공모전
7월 중 2023생명살림 법회 확대
5월 19일부터 마음케어 '늘봄'
움직임 명상 등 힐링명상 개발

불교를 대표하여 명상을 통한 국민 힐링에 나서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2023년 마음치유 사업을 공개했다. 4월 24일 불교상담개발원이 공개한 자살예방·생명존중 사업 '몸·마음·쉼'과 마음돌봄 치유 사업 '늘봄'에 따르면 사회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올해 진행된다.

자살위험군·유가족 케어 '몸·마음·쉼'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전이다. 공모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을 선정하며, 선정 프로그램에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우수 장학금이 주어진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해 선정된 프로그램 2개와 올해 선정 프로그램 2개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12월에 총 4개의 프로그램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그동안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불교만의 특색인 불교명상을 활용하여 마음을 돌아보고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유가족들의 마음도 어루만지는 데 주목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은 지원을 받아 사찰과 불교계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관협력을 통하여 서울 봉은사, 부산 범어사 등 도심 사찰에서 생명살림법회를 열고, 불살생과 생명존중 사상을 알려왔다. 올해도 7월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에서 '2023생명살림 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취약·소외계층 마음돌봄 '늘봄'

자살예방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소외계층의 마음치유를 위한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인들을 비롯해 격무에 시달리는 복지관 종사자, 소방관 등이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올해도 5월 19일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늘봄' 프로그램에서는 불교상담개발원이 공공영역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참깨나무' 명상이 활용된다. '참깨나무'는 '참여하기', '깨어있기', '나눔하기', '무르익기' 프로그램의 약자로 한 주에 하나씩 경험하며 총 4주간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여기에 블라인드 움직임 명상, 자기 자신 안아주기 등 세부활동도 진행된다.

사회 각계 맞춤형 마음케어 나선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사회 각계에 맞춤형 마음케어에 적극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사회에서 종교계에 기대하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마음상담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배출한 마음치유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명상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움직임 명상' 등 상월결사에서 주창한 이후 조계종 전반에서 일고 있는 움직이는 마음명상, 행선수행을 통한 마음치유에도 관심을 갖고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을 맡으며 그동안 불교상담개발원 차원에서 하지 못했던 영역으로의 진출이 조계종이라는 불교대표종단의 이름으로 가능해졌다. 종단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불교명상을 활용하여 사회기여를 높이겠다. 전문성을 갖고 자살예방, 공공서비스 마음치유를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존중과 같은 불교의 가르침도 함께 전하는 기회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 4월 27일 지정예고
18세기 화려한 불전건축 평가



전남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전남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康津 白蓮寺 大雄寶殿)'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사진〉

강진 백련사는 고려말 원묘국사 요세 스님(1163~1245)의 결사처(結社處)로서 조선시대에도 많은 승려들이 수행했던 사찰이며, 주불전인 대웅보전은 1760년 화재 이후 1762년에 중수한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의 단층 건물이다.

대웅보전은 공포의 형식과 초각 등 세부기법이 화려하고, 기둥 상부의 용머리 조각, 천장 상부의 용머리 장식 등은 해학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실내를 채운 여러 마리의 용과 봉황 장식 등은 18세기 이후 불전 건축이 장식화 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대웅보전 중수 기록인 〈만덕산 백련사대법당중수기〉와 사찰 기록인 〈만덕사지〉 등을 통해서 대웅보전의 중수 배경과 불사에 참여한 장인의 계보와 교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불교사와 건축사를 고찰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요세 스님은 백련사에서 백련결사문을 주도해 신앙결사 운동의 이론적 측면을 완성함으로써 지눌의 수선결사와 함께 대표적인 신앙결사의 축을 이뤘다. 또한 백련사의 승려들은 다산 정약용(1762~1836)과 협업해 〈만덕사지〉를 편찬하는 등 불교와 유교가 서로 교류했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백련사 대웅보전은 화려한 18세기의 건축적 특징과 관련 기록이 풍부하고,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된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 건강 발원하며 '108배'

복지재단, 4월 24일 후원의 밤
300여 불자 108배로 마음 모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24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23회 국내외 난치병 환아 치료비 마련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난치병환아 후원의 밤은 2001년 시작해 올해로 23회를 맞이했다. 코로나19 전까지 매해 3000배 정진을 통해 마음을 모아온 재단은 지금까지 총 90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총 22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3000배 정진을 중단하고 연중모연으로 후원을 이어왔다.

이날은 코로나19 이후 첫 정진으로, 조계사에 모인 300여 불자들은 108배와 함께 후원 동참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 시설 종사자와 봉사자, 후원자,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은 '상월결사 108 원력문'에 맞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24일 난치병 환아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108배 정진을 진행했다.

절을 올리고 백혈병, 심장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했다.

이날 108배 정진에 동참한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진우스님은 "작은 몸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난치병 아이들을 위해 아픔을 나누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달라"면서 "오늘 후원의밤을 시작으로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적극적 동참과 원력이 우리 모두의 희망과 용기의 원동력을 이끌어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108배에 앞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올해 23회를 맞은 난치병 어린이돕기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재단에 알려달라. 세상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은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윤석 아동의 어머니 안희선 씨가 참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감동을 전했다. 안희선 씨는 "윤석이를 혼자 키우며 감당할수 없는 치료비로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지만, 3년 전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의 인연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알려준 재단과 불자님들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까지 난치병 어린이 돕기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모연 금액은 병원법당 및 전국 사찰과 사회복지시설, 라오스 난치병어린이 쉼터에서 추천한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거쳐 난치병어린이들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02)723-5101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임은호 기자

경주문화재硏-동국대 WISE캠, 공동 발굴

4월 28일부터 신라 무덤 조사



2022년 진행된 공동 발굴조사 모습,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 WISE캠퍼스가 공동 발굴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간 공동 발굴조사가 올해도 4월 2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와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이영경)가 참여하는 연구소와 대학간 공동발굴조사는 지난 2020년 시작해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조사를 위한 기술·행정·예산을 지원하고, 동국대 WISE캠퍼스는 고고미술사학 전공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조사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공동발굴조사단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2020년 경주 구황동 지석묘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무덤군인 경주 쪽샘지구 유적에서 신라 무덤을 매년 공동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공동발굴조사 대상지는 지난 해 경주 쪽샘지구 유적 분포조사로 확인한 신라 돌방무덤과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단독 부장곽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쪽샘지구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형태와 용도의 무덤 및 부장곽으로, 신라인의 다양한 장례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서 만나는 특별한 부처님오신날



백담사 '연화장세계 템플스테이' 모습.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부처님오신날 · 가정의 달' 맞이 전국 템플스테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1년 중 날씨가 가장 좋고, 쾌적하기에 붙여진 수식일 것이다. 그만큼 가족 단위 나들이도 많아지는 시기다. 올해에는 부처님오신날도 5월 27일이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이 이뤄진 지금, 전국 사찰에서는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특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5월 가정의 달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템플스테이 해볼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처님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다. 서울 봉은사 등 전국 12개 사찰에서 진행되는 특별 템플스테이는 조금은 특별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서울 봉은사**에서는 5월 20일 내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봉축 템플 문화마당'을 연다. 문화마당에서는 지화 연꽃만들기, 에코백 만다라그리기, 단주 및 108염주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과천 연주암은 지역 사회와 연계해 사랑채복지관을 대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나눔 템플스테이'를 5월 27~28일 개최한다. 연주암 템플스테이에서는 연주대 등반, 요가명상, 팔찌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 대광사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연다. 프로그램은 탁본체험, 연등 만들기, 12지신상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권 사찰들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다채롭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부처님오신날은 함께하는 날' 템플스테이를 5월 27~28일 연다. 신흥사 템플스테이에는 연등 소원담기 체험, 요가형 108배, 숲 포행, 사찰투어 등이 마련된다.

양양 낙산사는 5월 26~28일 봉축법요식 참여를 비롯해 파도명상, 요가형 108배, 성불도 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처님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강릉 보현사**는 5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부처님오신날 어린이 문화체험 템플스테이'를 5월 26~27일 개최한다. 보현사 템플스테이 주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합장주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팝콘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봉은사, 신흥사 등 12개 사찰서
'부처님오신날 템플스테이' 진행
연꽃등 만들기 등 프로그램 다채
가족 대상 템플스테이들도 마련

인제 백담사는 5월 27~28일 '제15회 연화장세계 템플스테이'를 연다. 가족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력돌탑쌓기, 사찰 내 제등행렬, 연등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와 세종 영평사에서 부처님오신날 템플스테이를 만날 수 있다. **단양 구인사**는 5월 26~27일 부처님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운영한다. 내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인사의 템플스테이에서는 묵언 사찰 투어를 비롯해 스님과의 차담, 야간 등 구경, 관불의식 등이 진행된다.

세종 영평사에서는 5월 22~27일까지 사찰 습의와 부처님 생애 이야기, 명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처님오신날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전라권에서는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가 5월 26~27일 '땅끝, 새로운 출발을 대흥사에서'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다. 대흥사 템플스테이에서는 북미륵암 산행과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여할 수 있다. **부안 내소사**는 5월 13~14일, 20~2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처님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영광 불갑사**는 5월 26~27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별 문화체험 템플스테이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 사찰서 하룻밤을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놓치지 말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5월 5~7일 2박 3일간 '가족愛 발견' 템플스테이를 연다. 월정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자연명상, 별빛달빛 포행, 편지쓰기 등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는 5월 5~7일 부모님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날아보자 어린이날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법주사에서는 싱잉볼 명상과 구연동화, 가족 장기자랑, 전통떡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초등학생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5월 5~7일 '어린이날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5월 6~7일 어린이와 외국인 대상으로 특별 체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는 5월 1~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녹차 만들기 특별 템플스테이 '내가 만든 연둣빛 차'를 운영한다.

한편, 부처님오신날 및 가정의 달 특별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예약할 수 있다. (02)2031-2000

부처님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

사찰명	프로그램명	진행 프로그램	진행일자	참가 연령	비고
영평사 (세종시)	"부처님오신날"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사찰안내 및 습의 / 부처님의 생애 이야기 / 스님과의 차담 및 명상 / 새벽 예불 등	5월22일~5월27일	전연령대	특별할인 30,000원
대흥사 (해남)	땅끝, 새로운 출발을 대흥사에서	연꽃등 만들기 / 스님과 차담 / 북미륵암 산행 /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26~27일 (1박2일)	전연령대	
구인사 (단양)	부처님오신날 특별 이벤트 "천상천하 유아독존"	108염주 만들기 / 묵언 사찰투어 / 스님과 차담 / 야간 등구경 / 관불의식 참여	5월26~27일 (1박2일)	8세 이상	특별할인 30,000원
	외국인 일정도 동일 운영 Special Buddha's Bithday Eve Templestay				30,000원
백담사 (인제)	제15회 연화장세계 템플스테이	원력돌탑쌓기 / 사찰 내 제등행렬 / 연등만들기	5월27~28일 (1박2일)	가족단위	
대광사 (성남)	"부처님오신날"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탁본체험 / 연등 만들기 / 12지신상 만들기	5월 27일	전연령대	
신흥사 (속초)	"부처님오신날"은 '함께하는 날'	사찰투어 / 연등 소원담기 체험 / 연등탑돌이 / 스님과의 명상과 108배 절요가 / 숲포행	5월27~28일 (1박2일)	내국인 성인/학생/ 미취학아동	
보현사 (강릉)	부처님오신날 어린이 특별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기와단청문양 색칠하기 / 어린이 합장주만들기 / 연꽃등만들기 / 페이스 페인팅 / 팝콘만들어주기	5월26~27일 (1박2일)	5세부터 참여 가능	
불갑사 (영광)	부처님오신날 어린이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연꽃등 만들기 / 페이스 페인팅 / 차 시음 체험 / 제등행렬	5월26~27일 (1박2일)	영.유아는 부모님 동반시 가능	
낙산사 (양양)	부처님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	파도명상 / 요가형 108배 / 봉축법요식 / 관불의식 / 성불도 놀이 / 마음연꽃등 만들기 / 탑돌이	5월26~28일 (2박3일)	초등학생 부터 성인	
내소사 (부안)	부처님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	나만의 연등만들기 / 탑돌이 / 스님과 차명상	5월13~14일 5월20~21일	성인대상	
	부처님오신날 체험부스 운영: 합장주 만들기		5월27일	전연령대	
연주암 (과천)	부처님오신날 나눔 템플스테이	팔찌 만들기 / 연주대 등반 / 타종 예불 체험 / 요가 명상 / 차담 등	5월27~28일 (1박2일)	사랑채 복지관 대상	지역사회 연계사업
봉은사 (서울)	봉축 템플 문화마당	지화 연꽃 만들기 / 전통 등 만들기 / 에코 백 만다라 그리기 / 단주 · 108염주 만들기	5월20일	내 · 외국인 방문객	

가정의달 템플스테이

사찰명	프로그램명	진행 프로그램	진행일자	참가 연령	비고
대흥사 (해남)	녹차만들기 특별템플스테이 "내가 만든 연둣빛 차"	스님과 차담 / 찻잎따기 / 녹차 만들기 / 차 포장해서 가져가기	5월 1일~ 17일까지 (1박2일)	초등생 이상	
옥천사 (경남 고성)	어린이날 특별 체험형 템플스테이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	연꽃만들기 / 옥천사 보물찾기	5월 5일	부모님과 아이들	
	(옥천사와 지역 청년회와 함께) 부모님! 미.고.사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주지스님 자비나눔 법문 / 법성게 돌기 / 부처님 일생과 법에 관한 퀴즈와 상품 전달	5월 8일	60세 이상 지역 주민 모두 참여 가능	
불국사 (경주)	어린이 날 특별 체험형 템플스테이 부스 운영	영어로 체험하는 불교 / 연꽃등 만들기 / 합장주 만들기	5월 6일~7일 (양일간)	어린이 및 외국인	국제포교사와 함께하는 무료 체험
사나사 (양평)	여기어때~ 용(용문산)용(용천리) 좋겠지~	용용탑(물맑은 양평 용문산 용천리 사나사 계곡 소원돌탑을 쌓기) / 계그네(계곡길 공중 그네타기)	5월 6일~7일 (1박2일)	20대~40대	
한국문화연수원 (공주)	"사랑해요 우리친구들, 고마워요 우리친구들"	나무인형 만들기 / 생태체험놀이 / 마술쇼 / 목탁체험	5월6~7일 (1박2일)	가족단위	
마곡사 (공주)	어린이날 체험부스	풍선을 이용한 연등 만들기 / 색칠하기	5월 5일~7일	부모님과 아이들	
월정사 (평창)	가족愛 발견	자연명상 / 108염주만들기 / 별빛달빛 포행 / 내 안 들여다보기(명상) / 편지쓰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 사랑을 나눔	5월 5일~7일 (2박3일)	전연령대	
법주사 (보은)	"날아보자 어린이날 특별 템플스테이"	싱잉볼명상 / 구연동화 / 가족장기자랑 / 연등만들기 / 전통떡만들기(옥춘떡, 보자기떡) / 숲에서 명상하며 놀기	5월 5일~7일 (2박3일)	부모님과 초등학생 대상	부모님과 초등학생 프로그램 따로 진행



승소 (僧笑) CJ 제일제당

스님들이 드시는 그 맛 그대로,

정통 사찰식 만두 왕교자 출시

고품질의 건강한 사찰음식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전통 사찰식 만두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출시

스님들의 6번의 감리 끝에 탄생한 고품질 정통 사찰식 만두가 5월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사찰식 왕교자는 전화주문 및 승소매장과 승소몰(www.seungso.co.kr)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1층 | 전화 02-720-1786 팩스 02-720-1788 | www.seungso.co.kr

미소원 아빠들 집수리 봉사 '구슬땀'

부산 진구 개금동 일대서
소외이웃 주거환경 개선
개금동 일대 6가구 방문
전기 도배 등 전문 실력
'도반 화합' 봉사 원동력



사단법인 미소원 아빠봉사단이 4월 23일 부산 진구 개금동 일대에서 차상위 계층 및 장애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미소원 아빠봉사단(단장 장정화 · 이하 아빠봉사단)이 4월 23일 부산 진구 개금동 일대에서 차상위 계층 및 장애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아빠봉사단은 소외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능 봉사하는 불자 중년 남성들의 모임이며, 매월 2째주 일요일 부산 동구에서 장애인 가정 및 독거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활동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개금동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봉사 지역을 확장해 널리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정한 환경개선 지원 가구는 6가구이며, 대부분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원 가구 중에는 세대주가 지적장애 경계선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우며 자녀 6명과 배우자가 함께 매우 협소한 집에 거주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 만86세 어르신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은 벽과 바닥 장판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었고 문턱 발판이 높아 어르신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힘겨운 상황이었다.

아빠 봉사단은 각 가구를 방문해 도배와 청소, 누수 공사, 창문틀 교체 등을 실시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수리 활동에서 필요한 경비는 사단법인 미소원의 후원과 아빠봉사단 회원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진행됐으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특별후원금 100만 원을 지원해 훈훈함을 더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다.

장정화 단장은 "창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손발을 맞춰오니 이제 눈만 마주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봉사한다"며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 화합하고 만남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 또 봉사를 하고 나면 보람을 느껴 모두가 바쁜 가운데서도 집수리 봉사를 나오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 회원들 대부분이 결핵병원 봉사 등 미소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가해 자비 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만나면 진실한 도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집에 있는 전기등을 교체하려고 해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장애가정이나 독거어르신들은 도움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격려했다.

불자 군종지원부사관 연수 입재식 개최

4월 25일, 부산 금련사 대웅전서


4월 25일 부산 금련사 대웅전에서 육군 군종지원부사관을 대상으로 연수 입재식이 봉행됐다.

4월 25일 부산 금련사 대웅전에서 육군 군종지원부사관을 대상으로 연수 입재식이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군종지원부사관을 격려하고 군사찰 중심의 신행활동 강화 및 군종교구와 소속감, 유대감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연수는 4월 25일부터 28일 총 4일간의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군포교 활성화 방안 토의, 쿠무다 명상센터 방문, 역량증진 세미나, 통도사 순례, 명상법강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재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격려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교구장 세봉 스님과 군승 포교국 국장 경진 법사를 비롯해 군종지원 부사관이 함께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세봉 스님은 "불교를 기계에 비유하자면 윤활유와 같다. 윤활유는 마찰이 일어나는 곳에 열을 식히고 부품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 불교도 이와같이 힘들고 부딪히는 순간에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된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도 병사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키우시기 바란다"며 격려사를 전했다.

군승 포교국 국장 경진 법사는 "예전 대위로 근무할 때 타종교는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서 불교는 왜 이런 자리가 없을까 하며 아쉬워한 적이 많았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4월 24일~26일, 3일간 봉행


통도사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내 설법전 및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7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내 설법전 및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7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통도사는 매년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며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산조 자장율사의 계율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보살계 전계아사리는 덕문 스님이 갈마아사리는 前 통도사 강주 현진 스님이, 교수아사리는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이 맡았으며, 7증사는 천진 스님, 우진 스님, 증도 스님, 심산 스님, 종현 스님, 도암 스님, 영산 스님이 증명했다.

회향식에서 통도사는 35회 동참자 법운영 불자와 25회 동참자 여래장 불자에게 성만패를 수여했으며, 20회 수계자 5명, 15회 수계자 11명, 10회 수계자 14명에게는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수계는 계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말인 지계는 지고 이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계에서 비롯됐다"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 계를 지키고 정진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계율은 현대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며 "오늘 계를 받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회향식에서 통도사는 수행정진을 당부하며 장학금 29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쌍계사, 계묘년 보살계 법회 회향



1200년전 진감국사가 창건한 이래 육조 혜능 스님의 법맥과 해동계맥, 청나라에서 전래된 중국계맥 등 양대계맥을 이어온 계율근본도량 조계종 13교구 쌍계사가 제48회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4월 24일 팔영루에서의 입재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3일간 쌍계사 대웅전, 팔영루, 금당에서 봉행된 보살계 대법회는 26일 대웅전에서의 수계법회에 이어 금당에서의 육조종재와 상공, 천도재를 마지막으로 회향됐다.

이날 법회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전계대화상 덕민 스님, 문수암 이암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불지사 정인 스님, 유나 종성 스님, 혜원정사 원허 스님, 승가대학장 대각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 평안사 지현 스님, 운흥사 월암 스님을 비롯한 쌍계사 본말사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전계 아사리 덕민 스님을 비롯한 3사 7증 스님들의 증명으로 봉행된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덕민 스님은 십중대계와 보살 48경구계를 설했다.

덕민 스님은 "쌍계사는 동산율사, 석암율사, 고산율사의 계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청정계율을 한평생 실천하신 스승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계율근본도량 쌍계사를 잘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겁외사 · 백련문도, 연합 방생법회 봉행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신 퇴옹당 성철 대종사의 생가터에 건립된 겁외사에서 백련문도 연합방생법회가 4년만에 봉행됐다.

산청 겁외사 대웅전과 인근 경호강에서 봉행된 백련문도 연합방생법회에는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 정심사 원영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해인사 원타 스님, 겁외사 주지 일학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백련문도회 전국사찰 임원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면불 옆에 성철 스님께서 지난 1989년 3월1일 종교인연합회에서 법문하신 '통일을 바라며' 라는 글이 있다"며 "여기 방생하시러 오신 불자들이 가슴에 담아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근 경호강으로 이동한 사부대중은 방생의식을 봉행하고 치어 2000마리를 방생했다.

백련문도의 연합방생법회는 성철 스님 열반 이듬해인 1994년부터 매년 음력 3월 7일 봉행되어 왔다.

겁외사가 창건된 2001년부터는 겁외사 인근 경호강에서 백련문도 연합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3일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를 앞두고 있어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범내산 관음사, 산신재 나눔잔치

4월 22일 쌀 1080kg 전달



부산 범내산 관음사(주지 천웅)가 4월 22일 경내 대웅전 옆 마당에서 '산신재 및 행복쌀 나눔잔치'를 봉행했다.

이번 산신재를 통해 관음사는 지역민들의 안녕과 국운융창을 발원했으며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80kg을 범천2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천웅 스님은 "제가 이곳에 온 첫해에 초라하게 시작한 산신재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모두 부처님과 산신님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부처님 가르침 실천도량이 되고자 한다"며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 정토사, 울산 음식 귀환 연고례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4월 24일 임진왜란 때 일본에 전해진 울산음식에 대한 기원 설명회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전해진 음식의 귀환연고례를 임란공신 의병장 56위의 위패가 모셔진 창표사에서 개최했다.

일본과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울산지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일본음식을 진설하고 잘못된 전쟁을 반성하고 격전지였던 울산지역에 다시는 전쟁없는 평화의 도시를 기원했다.

울산 정토사가 주관하고 부산한일문화연구소(소장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정토사 주지스님 인사, 김문길 교수의 일본에서 전래된 음식 소개, 일본 대표 감사 인사, 일본귀환음식 시식, 서생포 왜성 참관의 순으로 진행됐다.

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400여 년 전 무지와 탐욕에 의한 전쟁으로 인해 조선의 문물과 기술이 일본으로 전해져 대를 이어온 일본식품의 고향 방문이 울산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식품 음식류 귀환행사로 한일 시민들이 슬픈 과거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좋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길 소장은 일본에 전래된 음식을 설명하며 "일본인이 건강식 자연미라고 하는 적미(赤米)와 적주(赤酒)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간 볍씨에서 유래한다. 가토 기요마사가 환국할 때 적미 재배와 적주 제조법을 전래시켜 오늘날 일본인들이 조선술이라 하며 적주를 즐겨 마시고 있다"고 했다.

일본과자 센베이에 대해서는 당시 의병들은 비상식량으로 떡을 얇게 썰어 말려 먹었는데 이를 본 왜장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비상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센베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돌잔치 때 센베이를 들면 용장 가토 기요마사가 된다면서 반드시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만 먹은 사탕도 있는데 이 사탕도 돌찬치에 빠지지 않는 명물 과자로 과자봉지에 '울산 사탕'이라고 유래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벽선암, 산신각 이운 점안식

4월 23일, 땅설법 의례 진행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이 4월 23일 경내에서 산신각 이운 점안식을 봉행했다.

산신각 이운 점안법회는 땅설법 전승자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의 땅설법 의례로 진행됐다. 땅설법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하는 교리 학습지도법으로 알려져있다.

주지 혜진 스님은 "땅설법은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에 선정된 불교의례이다. 다여 스님은 땅설법 전승자이며 오늘 의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불자들이 환희심을 가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북바람' 공연

5월 3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BBS(사장 수불)는 5월 3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을 위한 '북바람'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BBS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유치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 미디어 아트와 한국 전통음악,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모듬북 공연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매력을 재확인하고자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드림타'의 타악앙상블과 '생동감크루'의 LED댄스, '타고'의 모듬북 공연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051)797-511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성주사, 설법전 개보수불사 회향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4월 20일 전면 개보수 공사를 마친 설법전에서 회향법회 및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의식은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석봉 스님을 비롯한 불모산 영산재 스님들의 집전으로 불교전통방식으로 봉행됐다.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지혜의 바다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일체가 좌우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은해사, 꿈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매김

육군3사관학교 생도 템플스테이, 인성 · 리더십 함양 교육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덕조)는 육군3사관학교(교장 배현국, 소장) 3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신라화랑도 정신을 계승하는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4월 20일 경내 육화원에서 4개 조로 편성된 육군3사관학교 3학년생도 2조를 대상으로 진행된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 입재식에는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연수국장 혜석 스님, 생도대장 남진오 준장, 3사관학교 생도여단 3훈육대장 안운기 소령을 비롯한 120여 명의 생도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군사학 교수 박영진 대위는 '화랑정신과 생도의 정체성'을 주제로 '6세기 화랑이 21세기 생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화랑도의 정신은 시대를 관통하는 민족정신 미래 장교로서 생도정신 군 핵심 가치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생도대장 남진오 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해사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가 생도 여러분에게 꿈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라며 즐겁게 보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육군3사관학교는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로 생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준 은해사에 감사를 전하며, 은해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혜석스님과 이지선 템플스테이팀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소회를 밝히며 "43일 동안 묵언수행을 하며 가장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스님들과 함께한 것"이라며 "묵언수행으로 한계를 극복한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이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어 스님은 "함께 했던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동료와 보듬고 이해하는 전우애를 발휘하여 함께하는 소중함을 알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은 4개 조로 나뉘어 4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1박 2일간 다도 및 차 명상, 동기간 소통 공감의 시간, 화랑 수련지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한편 은해사는 육군3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장교로서의 올바른 인성과 품성 그리고 리더십을 배양하고, 올바른 군인정신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랑리더십교육 템플스테이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창간40주년 일붕신문, 제5대 총재 월인 스님 추대

4월 26일, 창간 40주년 기념식

팔공총림 방장 의현 스님 증명
"불교 화합, 전법 포교로" 법문
월인 스님 "불법 홍포 박차" 강조
300여 불자 참석해 함께 발원



총재로 추대된 월인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이 추대장을 받고 있다.

1983년 창간된 일붕신문이 창간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제5대 총재로 화산 월인 스님을 추대했다. 일붕신문사(발행인 서병열)는 4월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간 40주년 기념식 및 제5 총재 추대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증명법사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이 참석했으며, 월인 스님을 비롯하여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총재 무해 동봉 스님,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청봉 스님,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해가 정림 스님,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 한화갑 前민주당 대표, 남영진 KBS 이사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재로 추대된 월인 스님은 "일붕신문이 오늘날까지 40년간 꾸준히 발행되어 온 것은 일붕문도회 문도들의 경영에 대한 지도력과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국 1만여 일붕문도를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더욱 더 애독해주시고 격려와 채찍질을 해달라. 훗날까지 일붕신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법홍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의현 스님은 "한국불교가 중흥하고 발전하려면 종파를 초월해 범불교 화합의 정신으로 전법 포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이날 강조했다.

의현 스님은 "한국불교는 불자 수 감소와 출가자 감소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불교의 생명은 전법륜에 있다. 우리 사부대중은 한사람 한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념식은 개회와 삼귀의례, 국민의례와 흥천사육법공양단의 육법공양, 서병열 일붕신문사 발행인의 인사말에 이어 화산 월인 스님 총재 추대취임식, 동봉 스님의 대회사, 청봉 스님의 집행사, 정림 스님의 봉행사, 청법게송, 의현 스님의 법어, 각계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서병열 일붕신문사 발행인은 "5대 총재로 취임하신 월인 스님은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과 이사장을 맡으며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훈련장병에게 수계법회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고 추대의미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위한 자료 기증 동참하세요

광동학원 법인 사무국으로
저서, 유품, 영상 자료 등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초격)가 자료관에 전시될 자료를 기증할 동참자를 찾는다.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은 대강백이며 구국의 영웅, 교육자로서 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한 위인으로 평가받는 운허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진됐다. 운허 스님은 학교법인광동학원 설립자로 다수의 학교를 설립, 후학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웠던 교육자다.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을 주도한 공로로 '문화훈장'을 받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덕으로 '독립운동 공로포장'을 수상했다.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은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이한 광동학원이 주도한다. 기증 자료는 운허 스님 관련 저서 및 글, 유품, 사진 및 영상자료, 학교법인


광동학원 관련 저서와 글 등이며 광동학원 법인 사무국(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광동1길 10)으로 접수하면 된다.

추진위원장이자 광동학원 이사장 초격 스님은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은 운허 스님의 교육 입국 정신을 계승하고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불교 종립학교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운허 스님의 교육과 전법의 위대한 업적을 후학들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자료관에 전시할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031)570-6611

임은호 기자

김해 동림선원 개원 5주년 기념법회

4월 22일 3층 대법당서…은암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김해 동림선원이 개원 5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4월 22일 동림선원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된 개원 5주년 기념법회는 헌공불공에 이어 범종5타, 육법공양, 개회사, 삼귀의례, 찬불가(동림불모중창단), 연혁보고, 영상시청, 주지스님인사말, 내빈소개, 은암장학회 장학금전달식, 음성공양, 공지사항,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

이날 개원법회에서 동림선원 신공스님은 지역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김해지역의 동국대학교 재학생을 위해 미래불자육성 장학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해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앞으로 문화원을 건립하고 템플스테이관도 만들어 이 시대에 맞는 행복도량, 문화 도량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은암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은암문화재단과 김해시청의 공지를 거쳐 선발된 박고경(인제대학교 식품영양 · 식품공학부), 박형준(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 1백만원이 전달됐다. 동림선원은 추후 김해지역 출신 중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미래육성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개원한 동림선원은 1차 천일기도를 회향했으며 7월 2차 천일기도 회향을 앞두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총림 선암사, 개금불사 점안법회 봉행

4월 22일 대웅전 본존불 · 각황전 약사불 점안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가 대웅전 본존불과 각황전 약사여래불 개금불사를 회향했다.<사진>

선암사는 4월 22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무원장 당선자 상진스님을 비롯해 태고종단의 중요 직책 스님들과 10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선암사 대웅전 본존불은 높이가 233cm인 목조석가여래좌상으로 1823년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되고 이듬해 다시 중창되면서 조성됐다.

각황전 약사여래좌상은 전체 높이 140cm로 조성 시기는 고려 초기로 추정되며 고려 초기 순천지역에 선종이 전파됐음을 알려 주는 중요한 불상으로 평가된다.



방장 지암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선암사 대웅전과 각황전의 본존불 개금불사를 회향하는 날"이라며 "이제 우리는 오롯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다시금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주권회복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근 선암사 토지 등기 이전과 관련한 법적 주권이 회복됐음을 선언했다.

이날 선암사는 순천시를 통해 취약계층에 쌀 10톤(30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선운교육문화회관 광장 대형 봉축탑 불 밝혀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고창지역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대형 봉축탑과 가로연등을 설치하고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4월 25일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점등법회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찬불가, 인사말, 격려사, 축사, 발원문 낭독, 선운사합창단의 음성공양,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 앞 광장에 설치된 봉축탑은 일제 강점기 오쿠라 재단에서 무단 방출한 이천오층석탑을 모델로 제작됐다. 고창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라는 올 봉축주제와 함께 부처님 오신날까지 불을 밝히게 된다.

이날 점등식에는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범여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종회의원 재안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심덕섭 고창군수 내외,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 지역 기관장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선운사와 고창 지역 불교계는 봉축장엄등을 점등하며 고창군민과 전북도민, 모든 국민이 밝은 미래로 나가는 희망의 등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천불교연합회, 봉축점등식 봉행

영천불교연합회(회장 성본)는 4월 24일 영천역 광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점등식에는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영천불교연합회장 성본 스님, 군위사암연합회장 호암 스님, 경산사암연합회장 성담 스님,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본 스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하고 영천시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비추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무한하기를 축원 드린다고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영천시가 화합과 번영의 길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서원한다"고 했다.

조계종 제10교구장 덕조 스님은 "아집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관용의 정신이며, 이는 불교의 측은지심과 상통한다. 노력하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할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49주기 추모재

부도전서 선대조사 다례재 봉행

부안 내소사가 근대 호남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해안 대종사 49주기 추모재와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26일 해안대종사 열반 49주기를 맞아 조계종 원로의원 전등사 회주 동명 스님,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 조계종 어산장 동희 스님, 선운사 원로 범여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을 비롯한 국장스님들과 해안문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내소사 부도전에서 열린 역대조사 다례재는 조계종 어산장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다례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역대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정진 할 것을 다짐했다.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는 입정, 생전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 청취, 분향, 인사말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안 문도를 대표한 동명 스님은 "지난 2월 은사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인도순례를 다녀왔다.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원로의원에 추대됐지만 이 또한 스승의 은혜이다" 며 "열반하는 순간까지 화두를 놓지 않았던 해안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수행 정진하자"고 말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바쁘신 중에도 멀리까지 다례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 스님께 감사드린다" 며 "늘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대중스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 천은사, 봄 재즈콘서트 개최

사찰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눈길

힐링과 문화사찰로 거듭나고 있는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가 재즈연주가 윱 반라인을 (Joep van Rhijn)을 초청해 재즈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봄이 한창인 4월 22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천은사 보재루에서 진행한 이날 음악회는 윱 반라인의 자작곡 'Walking The dog'를 비롯해 10여 곡의 음악이 연주돼 참가자들을 감동시켰다.

대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천은사는 아름다운 문화재와 경관을 갖고있는 힐링과 문화의 고찰이다. 음악회가 열리는 보제루의 목조건물에서 영혼을 울리는 음악소리를 들어면서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즐겼으면 한다"라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음악회에는 트럼프 연주가 윱 반라인을 비롯해 피아노 전용준, 드럼 김영진, 콘트라베이스 송인섭 등 예술인들이 참여해 객석을 매운 관중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연주가 윱 반라인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세미 어쿠스틱으로 준비된 오늘의 무대는 천은사를 공연과 음악 감상을 위한 완벽한 장소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며, "프로그램은 대부분 저의 자작곡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에 평소 즐겨 연주하는 재즈 스탠다드를 더해 보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적 기업 CEO, 은퇴 후 '황혼출가' 화제

5천만 회원 스트리밍 기업 대표
인도 여행 중 슈레이 스님 만나
3주 후 수계…76만엔 재산 포기
여생 '이타행'으로 방향 잡을 것

박영빈 객원기자

은퇴 후 삶을 마무리하는 '황혼출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적인 대기업 CEO에서 은퇴 후 출가를 선택한 사례가 최근 일본에서 화제다. 일본의 'SPA! 뉴스'는 지난 21일, '17LIVE'의 전 CEO인 오노 류코 스님의 특별 인터뷰를 보도했다.

SPA! 뉴스는 인터뷰에 앞서 스님의 약력을 소개하며 "젊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력하는 삶을 살며, 장년기에 부와 명예를 얻는 교과서적인 삶을 산 인물"이라고 평했다. 출가 전 오노 히로후미라는 이름의 벤처기업가였던 스님은 12년간 일본 최대의 벤처 경영자 모임이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모바일 미디어를 비롯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다. 특히 출가 직전엔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자랑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대기업인 '17LIVE'의 CEO를 역임하며 회사를 안정화시킨 것은 스님의 대표적인 커리어다.


CEO에서 은퇴하고 출가자의 삶을 선택한 류코스님. 사진출처=SPA! 뉴스

류코 스님은 인터뷰에서 "이제는 류코(龍光)이라는 이름을 받고서 오노 히로후미라는 속세의 삶은 전생의 삶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며 출가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출가계기에 대해 은퇴 후 계획한 인도여행이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친구와 인도 여행을 계획했다. 당시에 출가은사가 되는 사사이 슈레이 스님의 책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SPA! 뉴스는 "사사이 슈레이 스님은 인도불교 부흥에 일생을 바친 일본 스님으로 처음 50여 년간 10만 명에 불과했던 인도인 불교도를 1억 5천만 명으로 성장시킨 스님이나 일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슈레이 스님과의 만남은 우연히도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친구의 지인이 스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던 것에서 성사됐다. 류코 스님은 "인도에서 슈레이 스님을 뵙는 순간 운명적인 어떤 것을 느꼈다"면서 "스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다. 만난 그날 '자네 스님이 돼서 일본으로 돌아가게'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당시의 만남을 회상했다.

마침 스님과 만난 3주 후, 1년에 한 번 열리는 인도의 집단 개종 및 수계식이 예정돼 있었다. 류코 스님은 "슈레이 스님께서 '거기라면 정식으로 출가할 수 있다'고 말하셨다. 곧 90을 바라보는 선지식을 두 번 다시 뵐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생각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노라 결심해 출가를 결단했다. 주저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류코 스님은 "출가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말하면 '스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요'라는 답을 듣곤 한다. 하지만 전혀 반대다. 계속해서 일만 해왔고, 성장만을 요구하는 나날이었다. 일에 대한 의문과 자신을 속이는 감각이 강했기에 오히려 출가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출가 후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다 "현재 내 명의의 재산은 76만엔 정도, 모든 재산은 대부분 출가 후 아내에게 넘겼다. 향후의 목표는 남은 일생을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즉 이타행만을 방향성으로 삼는 것"이라고 전했다.

印 달리트 1만5천 여명, 불교로 개종

암베드카르 박사 탄생 132주년 기념
서부 공동체서 집단 개종 법회 열려


카스트 제도로 인한 차별을 피해 개종하는 달리트. 사진출처=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인도 서부 구자라트 지구에서 암베드카르 박사의 탄생 132주년을 맞아 수백 명의 달리트가 불교로 개종해 화제다.

지난 4월 14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에 있는 달리트(दलित, 억압받는 자)공동체에서 달리트의 단체 불교 개종 소식을 전했다.

인도 헌법기초위원장, 법무장관을 역임한 암베드카르 박사의 탄생 132주년을 맞아 진행된 개종식은 5만 명에 달하는 달리트가 참여해 불교로 개종 및 기념 행진에 동참했다. 불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은 암베드카르 박사가 했던 22가지 서약을 외쳤다. 이 서약은 힌두 전통을 거부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종식은 자원봉사 단체 스와이암 사이닉달(SSD)주최했으며 프라그야 라트나 스님이 주관했다. SSD 관계자는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고 약 1만 5000명 불자들은 지역 행정센터에 불자로 인정받기 위해 개종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개종금지법 발효로 인해 위협, 협박, 유혹, 기망 등의 행위가 없이 자발적 개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검증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종식에 참여한 자이수크는 "나는 세 차례나 취업에 실패했다. 면접 당시 분위기가 좋았지만 면접관이 내 카스트를 알게 된 뒤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불교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종교다. 그래서 카스트가 없는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불교로 개종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종자 초한은 "개종 전 벽돌 가마에서 벽돌을 만들었다. 작업장에서 물 한 모금조차 편히 마실 수 없었다. 달리트는 닿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등과 자비의 문화를 따라 불교로 개종하고 있다"며 "힌두교에서는 모든 삶에서 카스트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았고 이는 사람이라면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밝혔다.

집단 개종식은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암베드카르 박사와 수십만 명의 평민, 달리트가 힌두교와 기존의 전통 종교, 토속신앙 등을 거부하고 삼보(三寶)에 귀의한 달리트 불교 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인도-스리랑카 불교로 문화유대 강화

수교 75주년 기념, 대표단에
불교 전래 묘사한 그림 선물


인도와 스리랑카의 문화적 유대를 묘사하는 그림이 공개됐다. 사진출처=위온 뉴스

인도와 스리랑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의 미낙쉬 레키 외교문화부 장관은 양국 간의 문화적 역사적 유대를 묘사하는 일련의 그림을 공개했다. 지난 4월 22일 인도의 '위온 뉴스'는 불교로 엮인 두 나라의 문화유대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4월 22일 뉴델리에서 열린 양국의 수교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스리랑카의 고등판무관 밀린다 모라고다는 아쇼카 대왕의 아들이자 포교사였던 마힌다와 공주였던 상가미타 장로니 스님이 인도에서 스리랑카에 도착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인도 측에 선물했다.

이날 스리랑카에서는 밀린다 고등판무관을 대표로 와스카두웨 마힌다완사 마하나야케 장로 스님이 이끄는 스리랑카 불교계의 대표단이 동행했다. 국제불교도연맹(IBC)의 사무총장 아비짓 할더도 행사에 참석했다. 양국의 수교 75주년 기념을 위해 열린 이번 기념식은 국제불교도연맹(IBC)과 인도문화부가 주관하는 2023년 세계불교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리랑카 대표단이 뉴델리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인도 정부에 선물된 그림은 콜롬보 근교의 켈라니야 라자마하 비하라 사원에 그려진 벽화 복제품으로 원화는 스리랑카의 유명화가 솔리아스 멘디스의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기원전 3세기 스리랑카에서 불교의 시작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그림에는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도착하자마자 스리랑카의 데바남피야티사 왕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이며, 두 번째 그림은 상가밋타 장로니가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보리수의 묘목을 가지고 도착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기념행사 중 레키 장관은 "인도와 스리랑카 간의 긴밀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 관계를 불교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이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대표단은 이에 대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리랑카와 인도 간의 불교 네트워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레키 장관의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리랑카 대표단을 이끈 밀린다 고등판무관은 "스리랑카와 인도간의 깊은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고려했을 때 스님들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헌팅턴 미술관, '송나라 불교 경전 특별전'

900년 된 '대방광불화엄경' 공개


헌팅턴 미술관이 소장한 〈대방광불화엄경〉. 사진출처=헌팅턴 미술관

미국 헌팅턴 미술관이 송나라 불교 경전 특별전을 개최했다. 지난 4월 21일 국제 미술 전문 매체 '아폴로'는 미국 헌팅턴 미술관의 송나라 불교 경전 특별전 개최소식을 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헌팅턴 미술관 서부 전시관에서 '1085년 인쇄: 송나라의 중국 불교 경전' 특별전이 4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린다. 900년 이상 된 〈대방광불화엄경〉의 일부가 대중에 공개된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송 왕조(960~1279년) 중 1080년에서 1112년 사이에 제작된 절첩형 경전이다. 전시에서는 총 9.5m 중 6.4m가 전시된다. 이 경전은 불교 경전 중 가장 긴 경전 중 하나이며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지켜지고 있는 교리와 의식 관행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숭녕만수대장(崇德萬壽大藏)〉의 일부도 전시 된다.

헌팅턴의 퍼시픽 림 컬렉션 리 웨이 양 큐레이터는 "'1085년 인쇄' 특별전은 유럽의 금속활자 보다 수 세기 전에 행해졌던 중국의 인쇄술과 불교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큐레이터에 따르면 송나라 부흥기인 960년부터 976년까지 통치한 타이즈 황제는 불교 가르침을 대중에 전파하기를 원했다. 이는 중국에서 목판 인쇄의 가속화로 이어졌고 이후 송나라 휘종(1082~1135) 때 중국 장시성에 있는 동선사에서는 승려와 장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팀을 이끌고 165,000개 이상의 목판을 자르고 잉크를 찍어 5,850권의 〈숭녕만수대장〉을 인쇄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과 가장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대장경 판각사업 중 하나였다. 오늘날 동찬사에는 〈숭녕만수대장〉의 유물이 남아있지 않으며 일부 유물은 아시아, 유럽, 북미 전역의 도서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있다.

이 특별전은 경전이 만들어진 배경과 종교적 중요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중국 불교 경전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경전과 관련된 추가 자료도 전시 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이 경전을 볼 때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위해 설계된 맞춤 진열장에 전시해 기적적으로 보존된 유물과 독특한 서지학적 특징 및 정교함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민재 객원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02-365-7747
성지순례를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7대성지 11일
룸비니, 보드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르 등 7대 성지와
타지마할 등 관광까지 포함한 꽉~찬 일정입니다.


바이칼/몽골 5박6일
시베리아의 푸른 눈 바이칼 호수,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까지!


스리랑카 5박8일
남방불교의 중심지 스리랑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담불라 동굴사원 등을 순례합니다.


라오스 3박5일
다양한 액티비티의 천국 방비엥,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루앙프라방,
라오스의 중심 비엔티엔까지!


대만 4박5일
대만 최대 불교성지 불광산사와,
법고산사 등 대표 순례지와
야류해양공원, 온천호텔 휴식까지!


동남아
방콕/아유타야 3박5일 화려했던 불교문화가 남겨진 도시
치앙마이 3박5일 고유의 문화와 자연이 조화로운 곳
베트남/캄보디아 3박5일 죽림 선종파의 탄생지+신비의 왕코르와트


일본
도쿄/하코네 3박4일
오사카/교토 3박4일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의 대표 도시 도쿄와 오사카, 시코쿠 등 순례를 떠나봅니다.
필수 사찰 포함, 관광, 휴식, 먹거리까지!


중국
무릉도원 장가계 3박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다시 열린 중국 하늘!
세계자연유산, 장가계+원가계+천문산
백두산(서파/북파) 등을 만나봅니다.

출발일, 인원수, 이용 항공, 호텔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孝, 그림으로 이해하고 되새기다

기획전 K-ART Ⅷ '효(孝)를 말하다'
무우수갤러리 5월 5일부터 28일까지

기성작가 8명 청소년작가 20명 참여해
〈부모은중경〉 현대 감수성으로 표현 등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효(孝)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미술을 소개하고 장려하는 무우수갤러리가 5월 5일부터 28일까지 기획전 K-ART Ⅷ '효(孝)를 말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성작가 8명과 청소년 작가 20명이 참여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미덕인 효의 가치를 이해하고 되새기는 미술작품을 선보인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를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 하여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생각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유교를 바탕으로 삼감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효의 마음을 가르쳤고, 효자에게는 상을 주고 마을 입구에 효자비를 세워주기도 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말하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출판해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했다.

전시에서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현대적 감수성으로 그린 김선희 동국대학교 연구교수의 수묵채색화와 고려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이락 작가의 창작 불화, 덕을 지닌 사람을 갓난아이에 비유한 노자의 〈도덕경〉 내용에서 착안한 경남대학교 김정란 조교수의 비단채색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삶을 반추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새긴 김내혜 작가의 전각, 부모님의 결혼 60주년을 기념해 '회혼례'를 주제로 결혼과 부모자식간의 인연과 사랑을 표현한 정채희 작가의 옻칠화, 오스트리아 벨트 뮤지엄과 국립현대미술관(과천)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한국의 민화를 선보이고 있는 문선영 작가의 창작 민화, 고희의 나이에 민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단에 등장한 선순애 작가의 '화성능행차도 병풍' 등이 소개된다.


김선희,新부모은중경, 가족,53x38

미술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일산중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크기가 큰 신발 위로 점점 크기가 작은 신발을 올려놓은 안시후 학생의 그림은 어린아이가 칭얼대면 군말 없이 업어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업고 걸어가는 길을 그리고 있다. 김세연 학생의 그림은 수험생인 손녀에게 방해가 될까 먼저 전화하지 못할 정도로 자애로운 할머니를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다. 보고 싶은 자녀의 전화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수화기로 형상화한 김지원 학생의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자아낸다. 갓난아기 때 입었던 배냇저고리와 물건들을 자신이 성장한 후에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며 부모님의 사랑과 기쁨의 크기를 알게 됐다는 노유라 학생의 그림과 부모님의 따뜻함과 체온이 향수처럼 스며들어 매 순간의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나윤서 학생의 그림은 부모님에게 입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고백이다.

전시를 기획한 무우수갤러리 양효주 학예실장은 "효 윤리는 궁극적으로 인간 사이의 소통과 존중을 중요시하는 철학"이라며 "이기주의와 인간소외가 만연한 오늘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다지고 코로나 시대에 파편화되었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하남 동사지 출토 유물 '한 자리에'

'佛과 僧의 法을 세우다: 塔' 展
하남역사박물관 7월 23일까지

하남역사박물관은 4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佛(불)과 僧(승)의 法(법)을 세우다: 塔(탑)'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하남 동사지 삼층·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미디어 파사드로 재현한 동사지 삼층석탑과 관내 유적인 동사지, 천왕사지, 법화사지 등의 출토 유물, 석탑의 부재, 그리고 탑을 만드는 데 근거가 되었던 조탑경전 등 탑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을 선보인다.

△1부 '탑을 세워 공덕을 쌓다'는 보물 동사지 석탑을 중심으로 천왕사지 청석탑, 여러 종류의 탑상문전, 그리고 탑을 세우는 공덕을 설명한 조탑경(造塔經)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장엄하여 부처를 공양(供養)하다'는 정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불교 문양이나 상징 동물 등 사찰을 장엄하는 요소들을 소개한다.

△3부 '탑으로 부처를 사련(思戀)하다'는 탑 속에 안치하는 사리장엄구의 의미와 봉안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한다.

대표 유물로는 동사지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금동석장이 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석장의 수량이 많지 않고 특히 매장문화재로 발견된 예는 최초라고 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또한 탑의 조성에 관해 설한 '석씨원류응화사적 목판(보물)'은 탑의 조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뛰어난 목판 인쇄술을 엿볼 수 있으며,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된 사리장엄구를 통해 당시의 뛰어난 기술력도 감상할 수 있다.

하남 동사지는 1991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88년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가 건설될 당시, 동국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이때 금당 등 4곳의 건물터가 드러나고 금동불상, 기와 도자기, 동으로 만든 불기류 등이 출토됐다. 금당 터 동편에는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보물)과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보물)이 나란히 서 있어 금당이 이 두 탑을 마주하고 남동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남역사박물관 전시실 전경.

이번 특별전은 불교 문화유산을 통한 하남시와 우리나라 전체의 우수한 건축 기술과 공예 수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의 계승과 문화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전시는 동사지 삼층·오층석탑의 보물 지정 6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한 특별전으로 보물인 석탑에 대한 뜻과 하남시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하남역사박물관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박물관에서 이러한 유물을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 하남의 위상에 걸맞게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발우공양 '가정의 달' 특별이벤트 진행

절식 제공 · 사찰음식 쿠킹클래스 열어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은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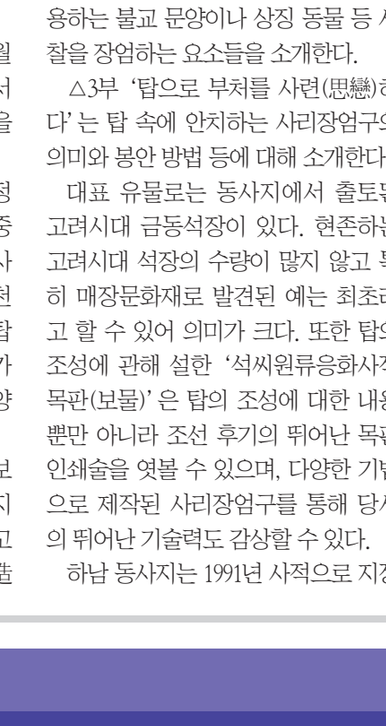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의 대표적 절식(節食)인 '볶은 검은콩'과 '봉축 기념떡'을 방문고객 전원에게 제공한다. 과거에 염불을 하며 숫자를 헤아릴 때 썼던 검은콩에 소금을 넣고 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전통을 재현하기 위해 발우공양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김지영 조리장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쿠킹클래스'도 진행한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봄메뉴 중 선호도가 높은 메뉴 3종을 선정해 가족단위 고객들을 대상으로 5월 21일 오전11시 사찰음식전문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발우공양 홈페이지 및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24명 정원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또한, 5월동안 발우공양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운의 뽑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발우공양 식사권'을 비롯해 '템플스테이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편, 발우공양은 한국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 레스토랑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를 획득한 바 있다. (02)733-208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거북선 원형은 '연선', 제안자는 '자운 대사'

〈鳶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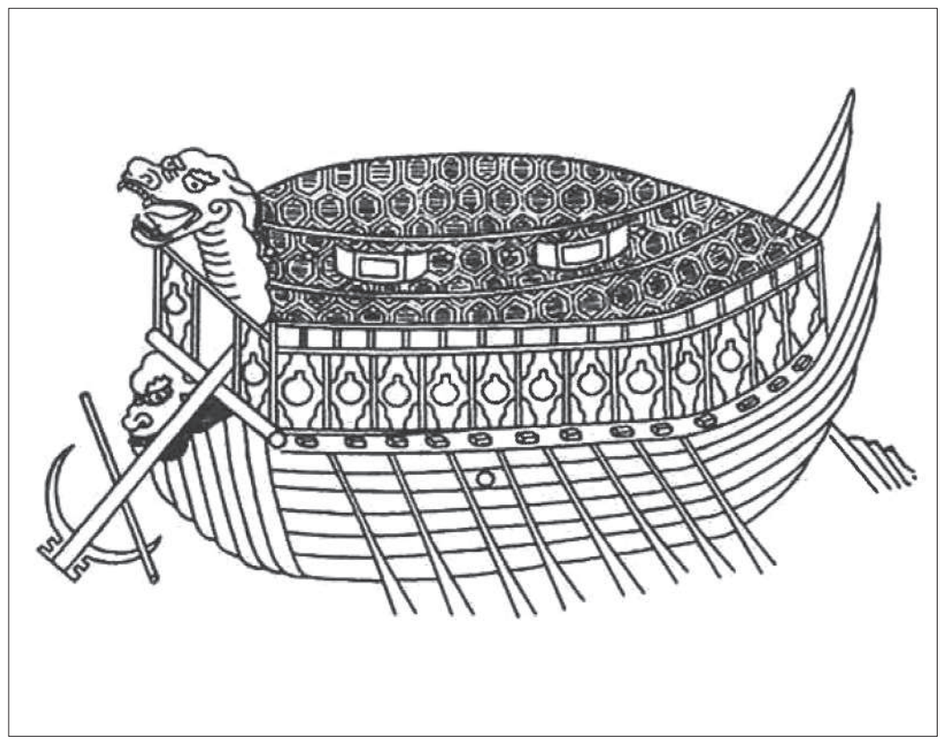


가람유사① 해인사 I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편
동국대 출판문화원
2만 5천원(세트 2권)



가람유사② 화엄사 I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편
동국대 출판문화원
2만 5천원(세트 2권)





화엄사 부도전에 있는 자운대사의 부도〈사진 왼쪽〉과 〈이충무공전서〉의 거북선 도안〈사진 오른쪽〉의 모습. 거북선 원형을 자운 대사가 제안했다는 설화가 화엄사에 전해진다. 이 같은 설화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발간한 〈가람유사〉 시리즈에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엄사 일주문 왼편에는 화엄사를 거쳐 갔던 고승들의 부도를 모셔놓은 부도전이 있다. 이곳에는 화엄사 출신 승려인 자운 스님의 부도가 있다. 자운 스님은 속가 4형제가 전부 출가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군으로 크게 활약했다. 자운 스님은 당시 전라좌수영에서 수군통제사를 맡고 있던 이순신 장군의 군사적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승수군을 결성한 자운 스님은 이들을 이끌고 이순신 장군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운 스님은 자문을 구하던 이순신 장군에게 거북선의 원형이 되는 '연선(鳶船)'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천축에서 한반도를 찾아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鳶起) 조사는 지리산에 찾아올 때 연(鳶)이라는 동물을 길들여 그것을 타고 왔다. 이 연이라는 거대한 동물은 거북의 몸을 하고 머리는 용과 같으며, 양 날개가 있어 하늘은 날기도 하고 바다에서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다. 그런 화엄사의 창건과 관련된 동물을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연선'이다. 연선의 머리는 용 모양을 하고 있어 불법을 수호하는 용과 같은 호법신의 상징을 지니고 있기에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승려로서 불살생의 계를 범하게 됐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승군을 조직하였고 또 연선을 고안했다. 이것이 왜군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자운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순신 장군은 크게 감동했고, 당시 도안은 이덕홍이 제작한 귀갑선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마치 전설 같은 이 이야기는 화엄사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설화다. 구비문학이나 설화, 민담을 단순히 가상의 역사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화, 민담은 당시 사회상이나 의식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가람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사하고 현대적으로 담아낸 총서 시리즈가 첫 선을 보였다.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은 〈가람유사① 해인사 I 〉〈가람유사② 화엄사 I 〉를 최근 발간했다.

〈가람유사(迦藍遺事)〉 시리즈는 산재돼 있는 전통사찰의 사료 및 자료들을 한데 묶고,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으로, 동국대 WISE캠퍼스 '한국불교 스토리콘텐츠 크리에이트 허브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맥을 잇고자 시작된 〈가람유사〉 시리즈는 기존 사찰 소개 책들과 달리 각 전통사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설화 · 민담 등 구비문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유사〉에서 '사(史)'가 아닌 '사(事)'라는 글자를 사용해 우리 역사에 있었던 특정 사건과 이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듯, 〈가람유사〉 시리즈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사찰의 구조 · 의식 · 역사를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람유사〉에서는 설화 · 민담에 숨어 있는 의미를 학술적 기반 위에서 재해석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합천 해인사 전경.

동국대 WISE캠 불교사회문화硏
〈가람유사〉 시리즈 처음 선보여
해인사, 화엄사서 구전된 설화들
학술적 기반 위에 재해석 '눈길'
'해인FC' 등 현대 스토리도 담아



구례 화엄사 전경.

앞서 소개한 자운 스님과 이순신 장군의 설화에서 나오는 '연선'의 '연'에 대해서 그 원형이 '연이 돌아다니는 계곡'이라는 사명을 지닌 지리산 연곡사(화엄사 말사)의 동승탑비 귀부를 주목해 설화의 신빙성을 더 했다.

나아가 책은 '연'이라는 전설의 동물을 추정한다. 인도 고대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온 하늘을 나는 기구인 '비마나'로 추정하며 도안을 그린 19세기 문헌의 〈비마니카샤스트라〉에 수록된 '샤쿠나비마나' 도안이 가장 연과 유사함을 밝힌다. 그리고 일본 닌텐도사가 제작한 게임 '슈퍼마리오'의 악당 대마왕 쿠파가 거북선과 외형이 닮았음을 주목하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더불어 일본인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거북선에 대한 공포가 일본인들의 집단 무의식에 잠재돼 쿠파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람유사〉는 오래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대의 사찰 비사들도 친근하게 풀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설의 FC해인'이다. 해인사 축구단은 1925년 통도사 스님들과의 시합을 위해 탄생했으며, 스님들의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해인사 스님들에게 체력 증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화재 진압을 위해서다. 가야산 산중에 있는 해인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당장 불을 꺼야 하는 소방관은 스님들이기 때문이다.

축구에 진심인 해인사 스님들은 1965년 직접 풀을 뽑고 땅을 평탄화해 운동장을 만들었고,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치르는 화합의 장이 됐다.

이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사찰이라는 공간을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텍스트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석길암 불교사회문화원장(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은 "〈가람유사〉는 〈삼국유사〉 이후 점차 소멸돼 가는 불교와 지역 스토리를 보전하고 현대적으로 알기 쉽게 재형상화하는 작업"이라면서 "향후 〈가람유사〉의 작업이 영화, 웹툰, 방송, 출판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이어져 한국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간행사에서 〈가람유사〉는 누구나 쉽게 접하는 불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불교에 대한 서원이 담겼음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가람유사〉는 남겨야할 가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남겨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자되고 재생산돼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교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녹아들고, 우리 삶을 불교 이야기에 되비춰 보는 선순환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람유사〉 시리즈는 〈은해사 1편〉 · 〈동화사 1편〉 · 〈화엄사 2편〉 등 3편을 올해 안으로 출판되며, 향후 국내 전통사찰들에 스며있는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한국불교 스토리 콘텐츠 크리에이트 허브사업단은 〈가람유사〉 시리즈 병행사업으로 불교 의례, 큰 스님들이 전하는 불교 역사, 설화 등을 5월 중 유튜브를 통해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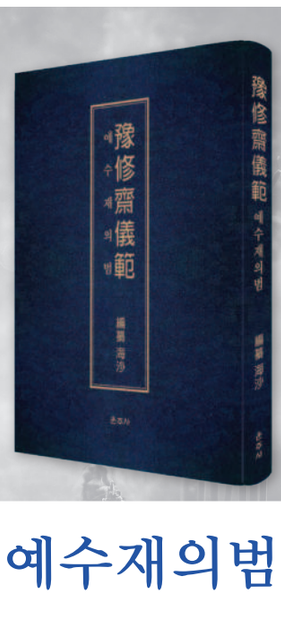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6~5/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기도문:매순간행복해지는마음습관	동명	불광출판사	6	명상차를논하다(3)행다선	지운 스님	연꽃호수
2	365일눈부신하루를시작하는한마디(스프링)	법상/용정운 그림	조계종출판사	7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3	요가수행디피카(아헹가요가5)완전함,내면의평화,해탈의	아헹가,조나헨스,다글라스 에이브럼스	선요가	8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만화로보는불교명상길라잡이(대원불교문화총서2)	방경일 글,정기영 그림	운주사
5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10	숫따니빠따(빠알리원전번역)*숫타니파타	일아 옮김	불광출판사

책세상

내 삶 채우는 작고 느린 존재들에 대하여



사소한 것은 없다
동은 · 진광 스님
모과나무
1만 9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매일 쓰는 안경, 볼펜과 만년필, 여행의 풍경, 저녁노을, 산들바람, 출퇴근길 등 우리 삶을 채우는 작고 소소한 존재들을 감성과 낭만으로 풀어 쓴 에세이 〈사소한 것은 없다〉는 "과연 삶에서 사소한 것이 있기나 한 걸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사소한 것은 없다〉에서 동은 스님과 진광 스님은 스무 가지 '사소한' 주제와 관련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40여 년 전 토굴 시절 사용하던 '찻잔'을 보고는 초발심을 경책하는 선지식이라도 만난 듯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일주문' 앞에서는 생애 가장 위대한 포기이자 탁월한 선택을 했던 출가의 순간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산책길에 만난 '의자' 덕분에 오솔길에 멈추어 서서 숲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음미하기도 한다. 찻잔, 일주문, 의자… 등은 누구나 비슷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자기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그런 '사소한 존재'가 아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사소한 것은 없다〉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이런 사소한 존재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일 말이다. 그리하여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존재에 대해 각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곱씹어보면 '사소함'은 결국 '소중함'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법성게〉에 따르면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一微塵中含十方)'고 했다. 즉 진리는 깨달은 자의 큰 뜻에만 있는 게 아닌, 티끌 같은 사소한 것들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다. 저자인 동은 스님과 진광 스님은 사소한 것들을 깊이 바라볼 수 있으면 저마다 삶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가 특별해진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정답이 따로 없으며, 각자가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일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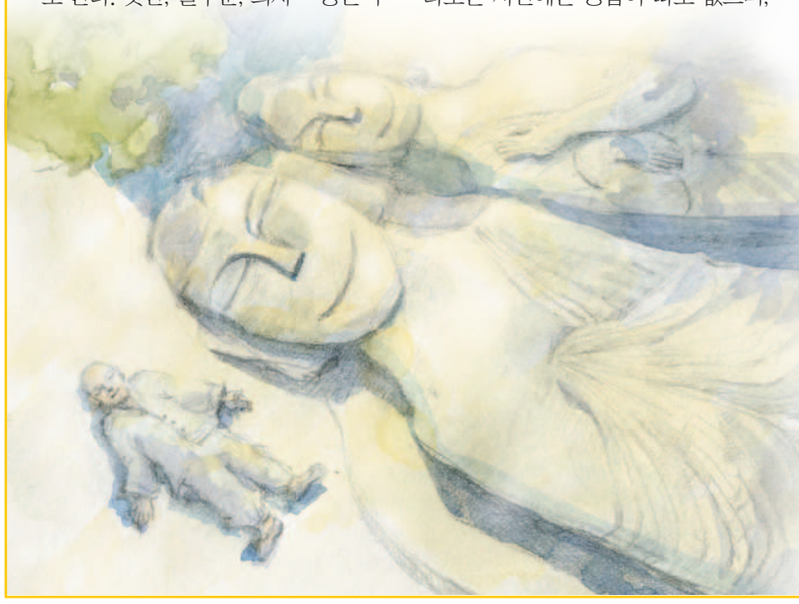
이를테면 '와불'이란 주제에서 동은 스님은 오래전 인도 순례길에서 친견한 와불을 떠올리며, 45년간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다가 쇠약해지고 지친 몸으로 사라수 아래 누워 다시 일어나지 못한 마지막 모습을 들려준다. 동은 스님은 이렇듯 '가장 인간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수행자적인 삶'이라는 생각을 와불을 통해 자연스레 펼쳐놓는다. 한편, 진광 스님은 운주사 와불을 떠올리며, 우리가 민초들의 벗이 되고 그들을 하늘로 알고 섬긴다면 누워계신 부처님이 어느 날 시나브로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도 중생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세상과 중생에게로 당당히 걸어가고 싶다고 다짐한다. 와불뿐 아니라 출퇴근길, 여행의 풍경, 노을, 길 등 다양한 주제에서 두 스님은 각자가 경험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펼쳐놓는다. 마치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기만의 경험이 있지 않느냐고 격려하는 듯 말이다.

'감성 제일존자' 동은 스님 '낭만 떠돌이별' 진광 스님
따로 또 같이 일상 '사소함'을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

결국 이 책에서 두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나'만의 시각으로 존재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다. 두 스님들은 이 책이 '사소함'에서 시작했지만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사소함이 결코 사소하지만은 않았음을 회고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식의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두 저자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의 목소리를 전한다.

〈사소한 것은 없다〉은 한 주제에 대해 두 저자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의 질문에 접근해간다. 그리고 그 진지한 사유가 독자들에게도 오롯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저자의 글을 독립적으로 배치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종국에는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난다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이 품고 있는 주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두 스님의 글을 모두 읽었을 때 좀 더 의미가 깊다. 실제로 동은 스님과 진광 스님은 글을 쓰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면모를 발견하면서 더욱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두 저자의 이런 배려가, 처음 출발점은 다르지만 도착점은 가장 가까이서 만난다는 이 책의 구성과도 잘 들어맞는 결과물로 이어졌다. 이 책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읽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저자 **동은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승가대학과 송광사 율원을 졸업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공부했다. 해인사, 봉암사, 통도사, 불국사, 백련사 무문관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였고, 《월간 해인》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지금은 조계종 화쟁위원을 맡고 있으며, 삼척 두타산 동쪽 천은사에서 살고 있다. 강진 백련사 무문관 선방에서 틈틈이 쓴 《무문관일기》는 2011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절판되었다가 2018년 《그대 지금 간절한가》로 다시 출간되었다.

▲저자 **진광 스님**은.?

덕숭산 수덕사로 법장(法長)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원담(圓潭) 스님을 3년간 시봉하다 선원으로 향했다. 정혜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운문암, 극락암, 기기암 등 제방선원에서 25안거를 성만했다. 2003년 조계종 총무원 수행사서를 거쳐 2010년부터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연수국장, 교육국장, 교육부장으로 10년간 재직하며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함께했다. 2020년 가을, 공주 유구 은구재(隱求齋) 토굴에 내려와 다시 선원에 들어 정진하며 독서와 여행, 글쓰기와 참선 중이다.

"미술 생명력은 창의 담보한 시대정신"



불교미술의 시대정신
손연칠 · 손문일 지음
뿌쉬낀하우스
2만5천원

"미술의 생명력은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은 창의성을 담보한다. 불교미술도 마찬가지이다.

〈불교미술의 시대정신〉은 근현대들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불교미술의 현장을 찾아 시대정신을 담보한 창의적인 불사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손연칠 작가는 이 책에서 미술의 생명력을 '시대정신'으로 보고 불교미술의 가치와 목적성에 대해 논한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의 미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미래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불교계의 관심과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명예교수인 손연칠 작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불교미술의 창의적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이웃 종교인 한국교회 미술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일찍부터 시대정신에 따른 창조적 미술 운동을 선도했다"면서 "불교미술 역시 시대 정신에 따라 독자적인 창의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분별해 냉혹하게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몰개성적 불사 변혁 없인
신세대 포교 불가능 강조

〈불교미술의 시대정신〉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현대 불교미술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웃 종교인 한국 가톨릭 교회미술의 시대정신에 따른 창조적 변혁에 대한 미술 운동을 소개하고 국내와 유럽의 대표적인 사례들도 실었다. 손연칠 작가는 "몰개성적인 불사를 변혁시키지 않고서는 신세대들에 대한 포교는 불가능하다"면서 불교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불교미술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언어로 표현한 깨달음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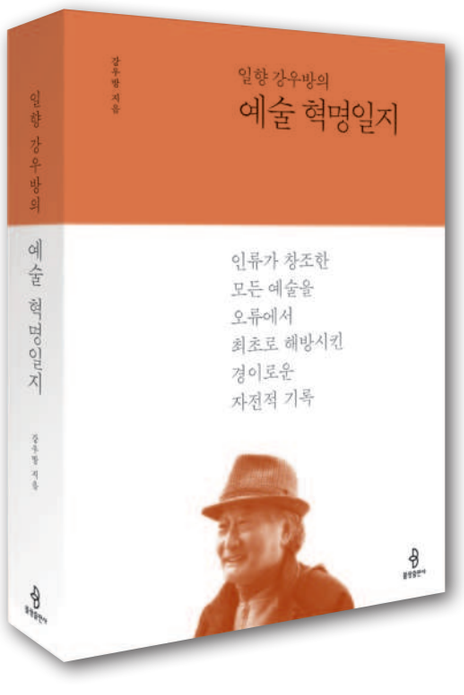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면
오현 스님 등 21명
이서원
1만5천원

승려시인회(회장 진관) 소속 시인들이 출간한 '승려시집 10집-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면'에는 오현 스님, 소현 스님, 경암 스님, 명안 스님 등 21명 시인들의 작품이 담겼다. 오현 스님의 '내가 죽어보는 날' '아득한 성자' 진관 스님의 '서울 까마귀' '금촌역에서' 등 100여 편이 수록됐다.

진관 스님을 비롯한 승려시인회 소속 스님들은 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시집을 출간, 벌써 10집을 맞았다. 승려시인회장 진관 스님은 "부처님으로부터 일체 미진수의 선지식들에 이르기까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부득이 언어로써 표현해야 하는 소통의 한계를 시를 통해 극복하려 했다"면서 "승려시인들은 문학포교의 중흥을 책임져야 하며 그것의 실천으로 힘이 닿는 대로 시집을 발표하는 '광선유포결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시인회는 1971년 3월 14일 대구 파계사에서 조오현을 필명으로 쓰던 무산 스님을 회장으로 지현, 병석, 성우, 정휴 스님 등 20여 명이 참여해 발족했다. 승려시집 4집까지 발간한 뒤 활동이 중단됐다가 1993년, 진관 스님을 위원장으로 청화, 대우, 수완, 혜일, 지원 스님이 참여해 15년 만에 재창립, 승려시집 5집 '피안으로 가는 수레'를 시작으로 꾸준히 시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세계미술사에 유례없는 발자취를 남기며 미술사를 사상사로 끌어올린
미술사학자 강우방의 거침없는 예술 이야기!



일향 강우방의 예술 혁명일지
인류가 창조한 모든 예술을 오류에서 최초로 해방시킨 경이로운 자전적 기록
강우방 지음
376쪽 | 32,000원

교과서에 박제된 예술품은 잊어라,
어디서도 듣지 못한 진정한 예술 세계로의 초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넓고 심오하다. 그 세계를 알아차리고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고 놀라운 안목이 열린다. 즉 개안하는 감격을 누린다."
_ 강우방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6



▶한줄요약
난타는 속세의 정을 끊어내려 애쓰지만 매일 손타라와 가족을 그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부르나의 깊은 신심을 본 난타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끊어지지 않는 번뇌…수행은 이어지고

뉴델리에서 며칠 ②

2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좋다. 한 번 더 너를 믿어 보겠느니라. 부디 청정행을 닦아 아라한의 경지에 들도록 하여라. 생각해 보아라. 너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그들은 모두가 번뇌를 벗고 아라한의 경지에 들지 않았느냐. 참고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경지에 들 수 있는 것이니라. 그들에게도 너 만한 번뇌로 인한 고통이 없었겠느냐. 사내대장부라면 한 번 대들어 봐야지.

난타는 이를 악물었다. 이젠 정말 손타라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대장부로서 아내를 잊지 못해 도망질이나 하는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못났다는 생각에 그는 대답하였다.

-잘 알겠습니다. 붓다시여. 이후로는 딴 마음먹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 후 신심을 내어 정말 수행에 임했다. 손타라 생각이 나면 수각으로 뛰어가 물을 뒤집어썼다. 그러다 안 되면 향으로 허벅지를 지졌다. 그래도 안 되면 붓다를 찾으면서 눈을 감고 명상에 들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수행하면서 안 사실이었지만 참으로 붓다는 평등한 인간이었다. 엄청난 수행 속에서 난타는 사색하는 인간을 보았다. 평등한 인간을 보았다. 차별 없는 인간을 보았다. 집착을 놓아버린 인간을 보았다. 신의 경지에 있으면서 결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장 완전한 인간을 보았다. 너무 평등했으므로 그 평등이 처음엔 서러울 때도 있었다. 그래도 자신은 붓다의 아우가 아닌가. 내가 그래도 붓다의 아우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서러웠다. 하지만 붓다는 자신의 독생자 라훌라에게 마저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붓다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 수행하느라 발이 얼면 가만히 다가가 그 발에다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 주었다. 그것은 그에게만 가지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입던 분소의를 벗어 주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이웃의 등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난타는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손타라가 그리웠다. 깨닫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타라를 한 번만 안아 보았으면 싶었다. 그럴 때면 붓다가 다가왔다. 그래도 난타는 손타라가 그리웠다. 그리고 가족이 그리웠다. 어느 날 그는 솔직히 붓다에게 가족이 그립다고 말했다. 손타라가 그립다고 말했다. 붓다는 난타의 솔직함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간인 이상 어찌 그들이 그립지 않겠느냐. 나도 한때는 그러했느니라.

미세(微細)한 무명(無明)의 번뇌와 습기(習氣)가 없어지면 그리움은 행복이 된다고 했다. 그래도 난타는 멀리 고국이 있는 산등성이 너머로 눈길을 주곤 하였다. 고향에서 놀던 모습이며 친구들과 어울리던 모습이 떠올라 그리웠다. 손타라가 그리웠다. 그녀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어느 날 난타는 붓다에게 이렇게 물었다.

-붓다시여, 그 오랜 수행을 하시는 동안 한 번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그리워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붓다가 머리를 내저었다.

-그렇다. 나인들 어찌 그들이 그립지 않았겠느냐. 나 역시 피가 끓는 인간인 것을. 사실은 나 역시 출가하고서도 그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세월을 헛되이 보내었느니라.

나는 너처럼 나약하게 그리움이란 없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외의 말을 듣자 눈앞으로 하나의 환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아름다운 아내와 핏덩이를 버리고 설산을 헤매고 사막을 헤매는 한 사내의 모습이었다.

그래 출가란 게 무엇인가. 세속을 떠나 세상 이치를 궁구한다? 말이 쉽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현재 겪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그에게 있어서야. 백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던 사나이. 막상 세속을 버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막막함뿐이었을 것이다.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 사막을 헤매고 설산을 헤매고 그러면서 생로병사의 의문을 붙잡았을 것이다. 누구라도 웃을 일이었다. 왕국을 버리고, 왕위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사랑하는 이를 버리고, 궁을 나가 인생을 구걸하고 있었으니.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번뇌를 떨치고 고요함을 얻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중생을 위해 주먹손을 쥐어 본 적이 없었다. 중생을 위해 자비의 손바닥을 보이며 거리에서 사는 사람. 비 오는 날도 걸식해야 했고 종일 걸식을 해도 베풀어주는 이가 없으면 빈 바리때를 안고 돌아서야 하는 사람. 때로는 심한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다. 바리때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 언젠가 말했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자신의 출가를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고. 세상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만족을 초월한 곳에 붓다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깨달아가면서도 난타는 손타라가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다. 몇 번이고 수도장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참으로 무서운 광경을 보고 말았다. 그것은 목숨을 건 부르나의 신심과 천상과 지옥에 대한 경험이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계세요?

다시 하루를 더 묵어야 하나 아니면 스리나가르로 떠나야 하나 하는 문제를 송 서화가와 의논하느라 읽던 노트를 또 접어야 했다. 숙소를 정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걸 잊고 지내보자고 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칼만 그렸다는 이지안 금어, 아버지가 그렸다는 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떠났다는 아들. 그 칼을 찾아다니는 오오스마 기자, 그리고 심 작가…. 그들을 만나는 사이 그런 칼이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차편이 없다고 하니 언제 떠나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가 보았더니 오오스마 기자를 데리고 오마고 하던 심 작가였다. 그 뒤에 오오스마 기자가 웃으며 서 있었다.

-왔군요.

내가 반갑게 두 사람을 맞았다.

-그러잖아도 전화를 드렸는데…?

송 서화가가 반가움 반 원망 반이 섞인 음성으로 수인사가 끝나자 말했다. 헤어지기가 무섭게 전화했는데 도통 받지를 않았으니 하는 말이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된다고.

뒤늦게야 인사를 하는 오오스마 기자의 어투에 정이 붙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가 안 되니…?

이번에는 내가 조금은 격의가 없어진 음성으로 물었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글은 다 읽었습니까?

-그댄?

송 서화가가 거피를 받으며 나에게 물었다.

-생각이 없습니다. 속도 좋지 않고.

심 작가가 왜 그러느냐는 얼굴로 고개를 쳐다보다가 커피가 뜨거웠던지 후후 불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글 읽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교단 내에서 전도 잘하기로 소문난 부르나가 파란타로 떠나던 날이었다. 파란타로 떠나기 전 부르나는 붓다에게 청하였다. 부르나가 가려고 하는 파란타는 너무 먼 곳이었고 험한 곳이었으므로 붓다는 그를 말렸는데 부르나는 고집을 부렸다. 그는 파란타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며 붓다의 법을 널리 펴도록 허락해 줄 것을 거듭 청하였다.



포트 물 끓는 소리에 내가 일어나 커피를 타 세 사람에게 건넸다.

커피포트 불을 켜고 물을 얹은 다음 돌아서자 오오스마 기자가 내 표정을 살피다가 물었다.

-지금 읽는 중입니다.

악필이라 글 읽기가 쉽지 않지요 하는 표정이 오오스마 기자의 얼굴에 스쳤다.

-이러나저러나 차편이 없다고 하니….

-기다려야지 별수가 없습니다. 차를 전세해서 갈 수는 있는데….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내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붓다시여, 이제 이곳을 떠나 스나파란타로 가게 해주십시오.

-부르나야, 너의 신심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곳은 너무 위험하다. 네가 그곳으로 가 5백인의 비구를 귀의시켰다고 해도 허락할 수 없다.

-저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성질이 흉악하여 인육을 먹는다고 하니 그 지방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면 어떡하겠느냐?

-붓다이시여, 그런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그만큼 착하구나. 나를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으니.

-그럼 주먹으로 때린다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착하구나. 나를 막대기로 때리지는 않으니.

-막대기로 때린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참으로 착하구나. 나를 칼로 베지는 않으니.

-그럼 칼로 베면 어떡하겠느냐?

-그때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참으로 착하구나. 나를 칼로 죽이지는 않으니.

-칼로 너를 죽이면 어떡하겠느냐?"

-인생 자체가 고의 연속이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도 있고 누군가 자신을 죽여주기를 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면 그렇게 원하는 죽음을 저에게 베풀어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제야 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하구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홍법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다만 그들의 이해를 구하려 한다면 근기에 맞게 법을 펼쳐야 할 것이니라.

부르나는 그 길로 스나파란타로 떠났는데, 대중들은 모두가 부르나의 깊은 신심에 경의를 표했다. 속세에 두고 온 아내를 못 잊어 안달하던 난타에게는 부르나의 신심이 그저 존경스러웠다. 전도를 위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부르나의 결의 앞에 난타는 참으로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난타는 심기일전해 무섭게 수행에 매진했다.

하루는 성 밖에서 걸식하고 돌아오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난타는 그 사람이 천축 최고의 논쟁꾼이라는 것을 몰랐다. 비말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난타를 만나자마자 수행심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난타는 그와 두어 마디 나누어 보지도 못하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거룩한 수행인 난타여, 왜 여기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이제 정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그의 힐문이 시작됐다.

-난타여, 어찌하여 그곳이 그대의 거처입니까?

-이보시오. 내가 수행하고 있는 정사가 나의 거처가 아니라면 어디가 나의 거처란 말이오? 〈계속〉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7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계묘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제주지사	김용덕		H 010-3697-2441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⑨ 남의 비난과 핍박에 대처하는 법



▶한줄요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뜻하짓 않는 비난과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힘 키우려면 불교의 중도, 무아에 정견을 세워야 한다.

정견, 비난·악행서 나를 지키는 '방패'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화두선은 너무 고준하여 재가 생활인들에게는 별 효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지금 유행하는 치유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와 화를 다스려 일상생활에 바로 도움을 얻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불교의 경전이나 선어록에는 참으로 무궁무진한 생활의 지혜가 담겨있다. 화두선의 교과서라 하는 대혜선사의 〈서장〉에는 송나라 고위 관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마음 다스리는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전하고 있다. 오늘은 현대인의 스트레스나 화를 유발하는 남의 비난이나 핍박에 대처하는 선의 지혜를 알아보자.

현대인의 가장 큰 괴로움 스트레스와 화

현대인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생활 속의 스트레스나 화가 아닐까? 현대 직장인이나 생활인이라면 누구든지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화, 분노,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살아간다.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 인류는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했다.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느끼지만, 집단적인 공동체의 문제도 적지 않다. 일단,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괴로움 문제는 뒤로 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트레스와 화를 유발하는 남의 비난과 핍박에 대처하는 지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화를 일으키는 남의 비난과 핍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화가 일어나는 상황은 사람 관계에서 그렇다. 가정 생활에서나 직장 생활, 그리고 사회 관계에서 상대하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르거나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일어난다. 웬만한 인간 관계에서 갈등은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상대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서로 견해와 주장을 고집하고 집착하여 뜻을 굽히지 않으면 대립 갈등이 일어나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가 일어나 싸우게 된다. 이처럼 남과 갈등하는 상황에서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는 말을 하거나 화가 나서 감정을 표출하면 그것이 더 갈등을 증폭시켜 싸움이 벌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이 벌어져 서로 간에 대화와 만남이 불가능해지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한다.

상대와 내가 대등한 관계라면 서로 싸운 뒤 다시 만나지 않으면 되지만, 갑을 관계나 상사와 부하의 얽매인 관계라면 다르다. 대개 회사나 공무원 등 직장인이라면 상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와 화, 우울을 앓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가 문제다. 갑을 관계처럼 인연을 끊기 어려운데 갑질을 당하거나 직장과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스트레스와 화, 우울이 쌓여서 우울증이나 번아웃처럼 무기력에 빠지기가 쉽다.

현대사회에서 신문방송에 자주 뉴스가 되는 것이 갑질과 상사의 시대착오적인 언행이다. 이것을 비꼬는 신조어가 '라떼는'이다. '내가 할 때는 … ' 운운하는 말을 상투적으로 할 때 그는 갑이나 상사로서 군림하려 하고 을이나 부하 직원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대하면 을이나 부하 직원은 스트레스, 화가 쌓여서 큰 병을 얻거나 번아웃이 되기도 한다.

인간 관계를 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고 화날 때는 상대가 나의 참 뜻을 모르고 비난하거나 멸시할 때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남한테 부당한 욕을 들을 때나 무시당할 때 스트레스를 느끼고 화가 난다. 그리고 이것이 자주 반복될 때 스트레스와 화가 쌓이고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기도 한다.

욕과 비난에 무아(無我)의 정견 세우기

불교의 지혜를 모르고 어리석음에 빠져 지지고 볶고 싸우며 괴로움을 주고받는 범부 중생들은 이러한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니 술이나 마약과 같은 약물에 의지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현대 과학과 결합한 치유 명상이 인기이다. 하지만, 불교의 정견이 없는 치유 명상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불교 무아 공부로 정견 세워
자기 보호하며 평상심 유지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당당하게 삶 살아가 힘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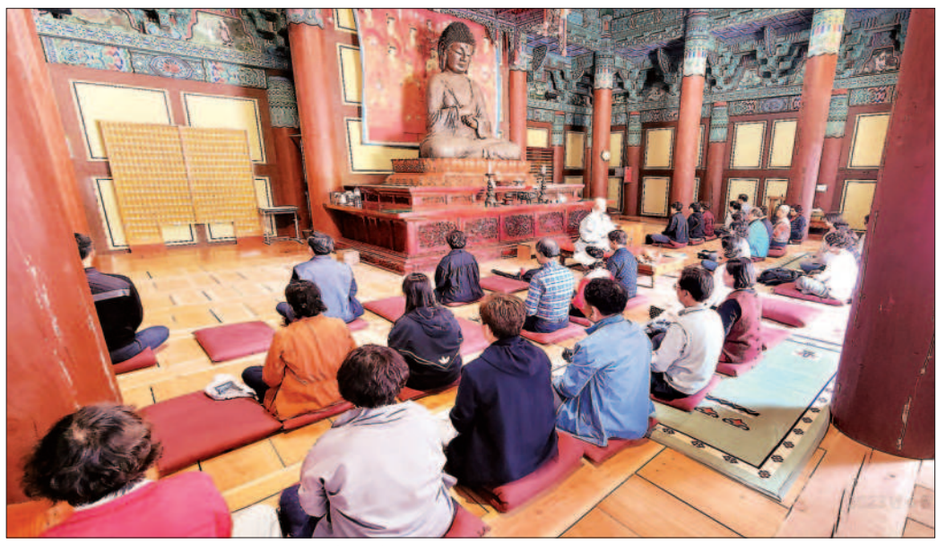
괴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처님의 깨달음 명상에 있다. 불교의 깨달음 명상에서는 남의 비난과 핍박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먼저, 부처님의 사례를 보자. 부처님께서는 조계종이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법문하신다.

"만약 보살이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불자인 보살은 '나'라는 생각인 아상(我相)이 없어야 하며, 내가 사람이라는 인상(人相)도 내가 중생이라는 중생상(衆生相)도 내 생명이 있다는 수자상(壽者相)이 없어야 참된 불제자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내가 본래 없다는 무아(無我)에 정견(正見)을 세운 불자라면 내가 사람이고 중생이며 생명이 있다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부처님은 나와 우주 만물이 실체가 없이 서로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연기법(緣起法)을 깨친 분이다. 나와 우주 만물이 연기로 존재하니 나라고 할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다.



구산선문 종찰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서 좌선하는 불자들.



송광사 대웅전 인욕보살행과 가리왕 벽화 사진 제공=김태형 송광사 박물관 학예실장

이렇게 불교의 무아를 공부하여 정견을 세운다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내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견해다. 나는 연기, 무아로 존재한다. 그러니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다'고 보고 행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를 밝히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화와 욕망 속에서 생사의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 남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더라도 실제로는 비난 받고 핍박받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봄이 바른 정견(正見)이다. 이것이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깨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무아의 지혜이다.

비난과 악행에 어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부처님의 〈금강경〉 가르침대로 '나'라는 생각 없이 보고 듣고 행해야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반대로 '나'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남의 비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강경〉의 '14. 상을 떠난 적멸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당한 체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수보리여,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신체가 베이고 끊김에 나는 그때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었다. 무슨 까닭인가?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를 해체당할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분노와 원한을 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전세에 인욕보살로 수행하던 어느 날이었다. 가리왕이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궁녀들이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어느 수행자를 둘러싸고 예경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났다. 누구냐고 물으니 인욕 수행자라 하자, 얼마나 참는지 보자면서 두 팔을 잘랐다. 그래도 태연하자, 이번에는 잔혹하게도 두 다리마져 끊었다. 이런 극악무도한 악행에도 인욕 수행자는 평상시처럼 태연하였다. 그제서야 가리왕이 스스로 놀라 무릎을 꿇고는 자기 악행을 참회하며 인욕 수행자에게 부탁하기를 도를 깨치면 자기를 가장 먼저 구제해 달라고 청을 한다. 이때 사지를 절단 당하는 악행을 당한 인욕 수행자가 바로 후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부처님에게 악행을 가한 가리왕은 〈초전법륜경〉에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깨달은 이로 나오는 꼰단냐(교진녀)이다.

부처님은 깨치기 전 수행자 시절에 이와 같이 극악무도한 악행을 당하였지만, 분노와 원한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 부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정견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연기, 무아의 정견을 세우고 정진하였기 때문에 가리왕으로부터 무자비한 악행을 당하고도 화와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반대로 무자비한 악행을 가한 가리왕도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비난과 악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지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뇌하는 스트레스와 화를 유발하는 상대의 비난과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려면 불교의 무아를 공부하여 정견을 세워야 한다. 무아의 정견을 세우지 못하면 나와 남을 분별하여 상대가 착각에 빠져 무지에서 나온 욕과 악행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 안에 화와 악업으로 되갚으려는 분한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가 정녕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모든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비난과 악행을 마주 하더라도 '일체가 연기이고 무아이니 내라고 할 것이 본래 없다'는 정견을 세워서 속히 지나가야 한다. 이것이 상대하는 사람의 욕과 악행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지혜로운 방편이다.

그래서 성철스님은 '자기를 바로 보자'고 법문하셨다. 내가 잡철이 아니라 본래 순금이다.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봄은 분별망상이고 착각 때문이다. 우리가 이대로 본래 완전한 부처다. 내가 본래 완전한 지혜와 복덕을 갖춘 부처임을 바로 보게 되면 자기라 할 것이 없지만,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지혜롭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힘이 나온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뜻하지 않는 비난과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키우려면 불교의 중도, 무아에 정견을 세워야 한다. 불교의 정견을 세우고 하루 5분 이상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와 화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매일 매일 밥 먹고 차마시듯이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화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❾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 한줄 요약
1515년에 조성된 보림사 사천왕은 여러 나무 판재를 못과 거멀쇠 등으로 엮어 제작한 323cm 높이의 목조 사천왕상이다. 조선시대 사천왕상 17기 중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유일한 사천왕상으로 가장 오래됐다.



사천왕, '호국〈護國〉·호법〈護法〉·지계〈持戒〉' 수호자

호국사찰에 각성스님 주도하여 사천왕 제작

불교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중심엔 수미산이 있다. 수미산은 신들의 세계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선정의 세계다.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첫 관문이다. 발보리심을 냈을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무엇보다 진리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한다(다문多聞). 청정한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하고(지국持國), 선함을 널리 행하고(증장增長), 항상 깨어있음으로 두루 살펴야 한다(광목廣目). 사천왕의 존명은 깨달음의 길에 나선 초발심자가 지녀야 할 네 가지 수칙처럼 읽혀진다. 사천왕은 그 네 가지 수칙의 의인화로 해석 가능하다. 사천왕은 네 방위와 결합한다. 북 다문천왕, 동 지국천왕, 남 증장천왕, 서 광목천왕의 통일된 구성체를 이룬다. 불국정토 수호의 막강한 외호의 위상을 가진다.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천왕은 호국신장으로서 사주 경계의 강력한 물리력으로 조성되는 특성을 띈다. 사천왕상 조형은 곧잘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수호해주는 하늘의 물리력으로 조영되곤 했다.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사천왕상(679년),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682년) 등에서 두루 호국의 목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혹한 전쟁은 국토를 수호하고 민중의 안전을 살피는 강력한 외호로서의 사천왕 불사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17세기 중반 3m~6m에 이르는 대형 사천왕상이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등 호국사찰 중심으로 조성된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대형 사천왕 불사 중심엔 전쟁 시기에 승군 조직을 주도했던 팔도도총섭 벽암 각성 스님이 있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사천왕상은 17곳으로 본다. 그 대부분의 사찰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당시 승군이 활약한 호국사찰이었다. 천왕문을 짓고 거구의 사천왕상을 세웠다. '사천왕상-호국사찰'의 패턴은 서로의 상징이나 보증 이미지로 부각됐다. 국가 수호신 성격의 사천왕은 한국산사 사천왕이 지닌 역사적 색채다.

사천왕과 지물 배치의 새로운 정립

한국산사 사천왕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첫째, 호국 수호신. 둘째, 불국정토 수호와 벽사. 셋째, 청정한 마음과 지계(持戒)의 일깨움. 갑옷으로 무장한 거대한 몸체와 험상궂게 포효하는 듯한 분노의 표정 등은 국토와 정토를 수호하는 강력한 힘을 드러낸다. 동시에 권선징악의 과보를 실감케 하여 저마다의 언행과 내면을 돌아보게 한다. 하지만 무서운 표정의 바탕엔 자비가 있다. 사천왕의 조형을 찬찬히 살펴보면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눈을 부라리고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당장이라도 덮칠 듯이 우악스럽고 흉포한데 뭔가 든든하다. 조선시대 사천왕은 한 결 같이 보관을 쓴다. 투구를 쓴다든지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의 사천왕상처럼 묶어서 틀어 올린 상투머리 형식도 아니다. 보관은 천왕문 공간에 흐르는 험악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다. 당황스럽게도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쓰고 있다. 온갖 꽃으로 꾸몄다. 화관 아래로는 긴 머리카락이 양 어깨 위로 흘러내린다. 보살의 이미지가 엿보인다. 목을 감은 천의는 몸의 좌우로 부드러운 선율로 휘감긴다. 사천왕의 표정과는 딴판이다. 손에 든 지물을 보면 더 갸우뚱하게 되고 미묘해진다. 호국과 정토 수호의 물리력으로서 무기만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탑도 쥐었고, 보주도 쥐었고, 심지어 악기도 연주하고 있다. 천상의 음악도 들려주고, 진리의 설법 자리에도 안내한다. 악귀를 짓밟고 있는 무서운 표정의 밑바탕에 자상함과 자비가 흐른다. 파격과 역설이 미묘하다. 청정하고 선한 마음, 평화, 생명, 법을 구하는 대상에겐 화사한 꽃 보관을 쓴 천인으로 부드럽게 다가온다. 한국산사 사천왕이 갖춘 보편의 지물은〈표1〉과 같다.

사천왕과 지물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일까? 기존의 생각은 탑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배치구도를 풀어나가는 핵심 단서였다. 당과 탑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한다. 진리설법을 많이 듣는 북 다문천왕과의 배대는 타당하다. 그를 기준으로 하여 북-동-남-서 시계방향으로 동 지국천왕-비파, 남 증장천왕-칼, 서 광목천왕-용과 보주에 각각 대응했다. 이 배치구도는 지국천왕의 권속이 음악의 신인 건달바인 점에서 악기 비파의 배치가 합리성을 갖게 됐다. 또 광목천왕의 권속이 용(龍)인 사실, 증장천왕의 확장 개념과 칼의 대응이 잘 맞아 떨어지는 등 두루 배치의 합목적성을 가졌다. 문제는 불화나 목각탱 조형에서 밝히고 있는 사천왕 존명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사천왕 몸에서 나온 묵서 기록과도 명백히 어긋났다.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후불탱화에 밝힌 존명, 문경 대승사 대웅전 목각탱에 새긴 존명, 김천 직지사,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사천왕상의 보수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기록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배치구도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도로 재정립해야만 했다. 결국 사천왕과 지물배치는〈표2〉와 같이 재정립되었다.

변경 전의 배치구도를 지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천왕만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이동하면 새로 정립한 배치구도를 갖는다. 장흥 보림사 사천왕은 이 모든 사천왕 조형원리와 구성, 배치의 시원에 위치한다.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남 증장천왕의 지물이 용과 보주가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시원 양식에서 전형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된다.

당과 탑	↑	비파
용과 보주		칼

표1. 천왕문 입구

초발심자의 네 가지 수칙 의인화해
조선시대 대부분 호국사찰서 조성
보림사 사천왕상 323m 높이 목조
임진왜란 이전 조성된 最故 사천왕

북 다문천왕 (당과 탑)	↑	동 지국천왕 (비파)
서 광목천왕 (용과 보주)		남 증장천왕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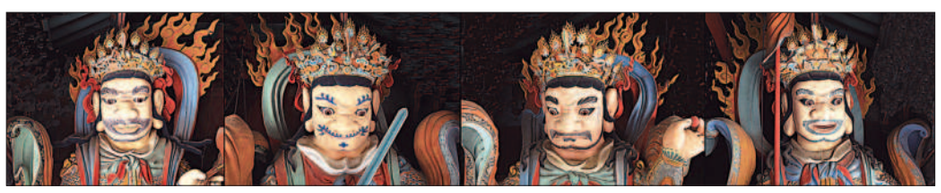
표2. 기존 변경 전

서 광목천왕 (당과 탑)	↑	북 다문천왕 (비파)
남 증장천왕 (용과 보주)		동 지국천왕 (칼)

표2. 변경 후 통일


장흥 보림사 사천왕(1515년).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북-동-남-서 사천왕 배치.


청도 적천사 사천왕(1690년). 왼쪽에서부터 북-동-남-서 사천왕 배치.


순천 송광사 사천왕(1628년). 왼쪽에서부터 북-동-남-서 사천왕 배치.


경주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사천왕(682년)

사천왕 조형의 모본이자 불교기록유산 보고

보림사 사천왕은 1515년에 조성됐다. 1668년과 1777년에 두 차례 더 중수를 거쳤다. 여러 나무 판재를 못과 거멀쇠 등으로 엮어 제작한 323cm 높이의 목조 사천왕이다. 조선시대 사천왕 17기 중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유일한 사천왕으로 가장 오래됐다. 천왕문 속 사천왕 제작에 체본이 되는 모본으로서의 위상도 가진다. 그 같은 특별한 역사적 가치로 인해 보물로 지정됐다. 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사천왕상은 3기가 있다. 장흥 보림사, 순천 송광사, 완주 송광사 사천왕이다. 대형 불상의 재질이 그러하듯이 천왕문에 봉안한 사천왕 다수는 나무틀에 진흙을 발라 제작한 소조상이거나 여러 판재로 엮은 목조다. 소조, 목조 외에도 특별하게는 독립된 공간에 탱화나 벽화로도 조영했다.

△목조 사천왕—장흥 보림사, 청도 적천사, 고흥 능가사, 하동 쌍계사, 양산 통도사 등

△소조 사천왕—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보은 법주사, 여수 흥국사 등

△탱화 사천왕—해남 대흥사 침계루 사천왕탱, 범어사 성보박물관, 홍익대박물관 사천왕탱 등

△벽화 사천왕—경주 불국사 대웅전, 양산 신흥사 대광전 사천왕 벽화.

이 모든 조선시대 사천왕상 조형의 시원 자리에 보림사 사천왕이 위치한다. 보림사 사천왕상은 사천왕의 방위 배치와 지물, 표정과 의상, 화려한 보관, 한 쪽 다리는 들어 올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독특한 좌상 형식 등 조선시대 한국산사에 나타난 사천왕상의 전형을 구현한 모본으로 위치한다.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주목되는 특성은 천왕문 공간에 금강역사라고도 부르는 인왕을 함께 배치하고 있는 점이다. 인왕은 통상 금강문에 배치한다. 보림사 천왕문은 금강문과 천왕문이 통합되어 있는 셈이다. 힘에 힘을 더한 격으로 호국과 불법수호의 물리력이 막강하다.

보림사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되는 데는 사천왕 복장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불서 전적들에서도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복장유물 발굴은 무려 세 차례 진행됐다. 1971년 1차 발굴에선 사천왕 몸통에서 150여 종의 불서가 쏟아졌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로 당시 출토된 전적들은 행방불명됐다. 2차 발굴은 1995년 순천대박물관에서 주관했다. 천왕의 팔과 다리에서 48종 203책이 나왔다. 2001년 3차 발굴 땐 천왕의 무릎 아래에서 29종 145책이 또 나왔다. 세 차례에 걸쳐 유례가 드문 최대 규모의 불교전적들이 쏟아졌다. 거대한 몸체의 사천왕상은 전적류와 다라니 류 등 불교기록유산의 보고로 각인될 정도다. 발굴 결과 후에 따로 보물로 지정된 1459년 간행 〈월인석보〉 제17권, 1482년에 간행한 〈금강경삼가해〉 등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 같은 불교전적들은 당대의 인쇄술, 불교문화사, 서지학, 고전문학 등에 새로운 정보와 연구지평을 확장시켜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꽃의 보관을 쓴 거인들, 나라를 지키는 호국,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호법, 청정 승가의 계율을 지키는 지계의 수호천왕이다. 역사가 전하는 문화의 빛을 수백 년 침묵으로 내밀하게 간직해온 네 개의 거대한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볼수록, 알수록 멋진 네 거인들이다.

〈사진작가〉



불교인문학살롱

⑨ 봉인사(奉印寺)에서

▶**김산옥 수필가**는 강원도 평창 출생. 2005년 〈현대수필〉로 등단. 수필집 〈하얀 거짓말〉, 〈비밀 있어요〉, 〈왈왈〉 등이 있다. 산귀래문학상 · 구름카페 문학상 · 김우종문학상 · 일신수필문학상 · 청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허상이었다

작년 여름, 휴가를 받은 딸들과 남양주에 있는 봉인사로 템플스테이를 갔다.

사찰에 도착하니 빗발이 굵어진다. 장마철 우기에 흠뻑 젖어있는 산사는 푸른 숲과 뒤엉켜있다. 입소 확인을 위해 종무소에 들르니 싸한 공기가 훅 안긴다. 으스스한 느낌은 비가 내리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종무소 직원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옆 사무실에 가서 의뢰하라고 한다. 그녀의 무반응에 주춤한다.

후려치는 빗줄기를 피해 우산을 접고 옆 사무실로 들어섰다. 입실을 허락받기 위해 우리 삼 모녀는 후줄근한 모습으로 안내하는 처사님 앞에 섰다. 마치 죄지은 교도소 수감자들 같다.

여름철 숙소는 삼복중 열기와 습기로 한증막이다. 방은 셋이 누우면 족했다. 텅 빈 방에는 선풍기 한 대와 얇은 요 세 채에 베게 세 개가 전부다. 창문은 우거진 나뭇잎이 커튼처럼 빼곡히 가리고 바람을 차단한다. 우리는 나누어준 법복으로 갈아입었다. 문득 영화 〈7번 방의 선물〉 한 장면, 교도소를 떠올리게 한다.

입소를 마친 우리는 뜻있는 추억만들기에 생각이 분분했다. 이른 저녁 공양을 마치고, 잠깐 비그친 틈을 타서 사찰을 두루 돌아보기로 했다. 비구름을 잔뜩 머금은 하늘은 이미 어둠을 흩뿌리고 있다. 지장전 뒤에 있는 어둑한 산책로로 들어섰다. 조금 올라가니 어둑한 그곳에는 영가들을 모신 봉안묘가 끝없이 이어져 있다. 뒤따르던 딸애가 그만 내려가자고 옷깃을 잡아끈다. 으스스한 냉기가 따라오는 듯하다.

우리는 사찰 반대편 산책로로 다시 접어들었다. 그냥 숙소로 들어가기 아쉬워 우거진 나무 숲길을 따라 걸었다. 왠지 그곳은 한적하고 아름다운 산길일 것만 같았다. 조금 올라가니 그곳에도 영가들을 모신 봉안묘가 수없이 이어져 있다. 뜨악한 표정을 짓는 딸애를 보고, 이곳은 영가를 모시는 지장전 사찰이라 봉안묘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딸은 슬그머니 내 손을 잡아끈다.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다.

해 떨어지면 이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면이 숲이고 적막강산이다. 우리는 사찰 지침대로 일찍 불을 끄고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잠을 청한다.

두 아이 엄마인 큰딸은 아이들 걱정으로 매 순간 마음 무겁게 산다. 내가 살아온 삶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간다. 학교 교육, 사교육, 성장 과정의 애환이 내 아이 셋 키울 때보다 열 배는 더 힘든 것 같다. 무거운 짐 지고 하루하루를 초고속으로 달리기하는 딸을 보니 측은하다 못해 안타깝다. 그 무거운 짐 잠시 벗어놓자고 엄마와 함께 산사를 찾았을 텐데 막상 오고 보니 이곳 또한 만만치 않다.

그쳤던 비는 다시 줄기차게 내린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엄청난 굉음으로 창문을 타고 넘어온다. 무단침입이다. 창문을 닫고 싶어도 밀폐된 공간에 선풍기 혼자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쉽게 잠들 것 같지 않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봉인사 전경.

딸들은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하는 눈치다. 저녁을 마친 후, 곧바로 숙소로 들어왔어야 했다. 공연히 산책하자고 이쪽저쪽 사방에 둘러싸인 봉안묘를 보게 할 것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는 영가들이 잠들어 있는 봉안묘지 한가운데 누워 잠을 청하고 있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면 마음이 평화로웠을 것이다. 원효대사가 밤중에 해골에 든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신 것처럼.

백중에는 모든 영가가 휴가를 나온다고 한다. 영가들은 49일간 이승을 떠돌며 자손들이 조상님 극락왕생을 위해 지내는 잿밥 얻어먹고 떠난다고 한다. 조상을 모시는 나도 해마다 시부모님을 위해 백중기도를 올린다.

하필 모든 영가가 떠도는 백중 기간에 이곳에 왔나 싶다. 이 어둠 속에서 영가들이 눈을 번뜩이며 수없이 우리 곁을 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꾸만 뒤척여진다. 딸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쉬이 잠들지 못하는 눈치다. 오로지 엄마를 위해 금쪽같은 휴가를 이곳에서 보내는 딸들에게 미안했다.

세찬 빗소리와 함께 선풍기는 끼익끼익 신음한다. 설핏 잠이 들려는데 바람 소리에 문소리가 덜컹한다. 동시에 딸이 "으악!" 소리를 지른다. 느닷없이 지르는 소리에 더 놀라 한동안 심장이 진정되지 않는다. 잠들지 못한 딸아이에게 그 소리는 천둥소리와 같을 것이다. 다시 잠을 청해보는데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빗소리보다도 더 크게 창문을 타고 들어온다. 어느새 새벽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잠 설친 세 모녀의 모습이 초췌하다.

딸과 함께 체험한 봉인사 템플스테이
영가 떠도는 백중이라 으스스한 느낌
잠 설치고 만난 부처님, 딸에 건넨 말
'웃기냐, 세상사 별거 아니다'란 충고
모든 것 空하다는 〈반야심경〉 가르침
천국도 지옥도 모두 마음이 만드는 것

아침 공양을 마치고 패잔병들처럼 '큰 법당' 앞마당에 들어섰다. 마당에는 300살 먹었다는 큰 살구나무가 손을 높게 펼치고 우뚝 서 있다. 마당 전체를 그늘 지울 만큼 웅장하다. 비 갠 하늘은 민낯을 드러내고 해맑게 내려다본다. 온통 초록빛으로 싸여있는 절 풍경은 근엄하고도 아름답다.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고 고적하다. 괴괴 망상으로 잠 못 들었던 생각을 한순간에 싹 거둬낸다.

큰딸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실없이 웃는다.

"왜 웃어?"

"엄마, 부처님이 나를 보고 '웃기냐?' 했어요."

뜬금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 작은 소리로 말을 한다. "부처님이 세상사 다 별거 아니래요."

밤새 끼익 대며 돌아가던 선풍기 소리, 자지러지게 쏟아지는 빗소리, 심장을 멈추게 하는 문소리, 산속을 뒤흔드는 자동차 엔진소리, 영가들 봉안 묘지로 둘러싸인 잠자리,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우나…' 하는 오만가지 잡념으로 시달리다 잠을 설쳤는데, 막상 부처님 앞에 서니 모든 것이 허상이었구나,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절로 웃음이 나왔단다. 멋쩍게 웃으며 부처님을 바라보니 온화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웃기냐' 하는 것 같더란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병이라고, 힘겹게 들고 있는 근심 걱정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딸은 해맑게 웃는다.

내가 평생 불자입네 살아왔지만, 일말의 깨달음도 얻지 못한 것을 딸애는 한순간에 알아차렸다. '석가모니가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자 팔만대중 중에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는 염화미소(拈華微笑)' 처럼.

마음이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든다더니 비그친 봉인사는 그 여느 사찰 못지않게 아름답다. 처음 싸하게 느꼈던 사찰에 대한 선입견도, 퉁명스럽게 보였던 종무소 직원의 반응도, 무섭고 괴괴하게 느꼈던 사찰도, 수없이 안착한 봉안묘의 으스스함도 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웃겼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기냐?" 부처님이 알아차리게 한 화두로 위안받으며 이겨낼 것이다.

오랜 세월 부처님 곁에 머물렀지만, 법문의 가르침에 이르지 못했다. 뜻도 모르고 〈천수경(千手經)〉을 외웠고, 무심히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읽었다.

어느 날 맹난자 선생을 만났다. 맹 선생은 〈반야심경 강의(김성규 지음)〉라는 책을 선물로 줬다. 〈반야심경〉을 아주 쉽게 풀이해놓은 책이다. 아무리 쉽게 풀이해놓았다 하더라도 〈반야심경〉의 깊은 뜻을 한순간에 헤아리기는 어렵다. 스님들이 공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 평생을 공부한다고 하듯이, 그 어려운 깨달음을 어찌 미흡한 중생인 내가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반야심경〉은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완성을 성취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일체만물에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모든 것은 공(空)이라는 것도.

"물질(육신)이 공과 다르지 않고(제행무상)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서 물질이 곧 공이며(제법무아) 공이 바로 물질이다."(〈반야심경 강의〉 35p)

육신을 이루면서 살아있는 동안을 색이라 하면 육신이 흩어진 죽음은 공이라고 한다. 결국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 형상을 이루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져 공으로 돌아가게(제행무상)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로병사는 인연의 작용(제법무아)에 의하여 주하다가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으며, 좋아함도 없고 싫어함도 없다. 물체나 물체작용이나 정신이나 정신작용이나 모두가 공이라 이 도리만 알면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처럼 어려운 법문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요즘은 〈반야심경〉을 읽으면 마음이 달라진다. 뜻 하나하나에 마음 조아리게 된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서(諸行無常)
끝없이 났다가 없어지나니(是生滅法)
나고 없어지는 법 깨닫고 나면(生滅滅已)
진리의 바다 고요하여 즐거우리(寂滅爲樂)'

부처님께서 나찰에게 이 게송을 듣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보시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부처님이 목숨 걸고 얻은 게송을 나는 너무도 쉽게 얻었다. 이 게송만으로도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축복을 받았다.

〈반야심경〉을 마무리하는 지혜의 주문은 가장 중요한 설법이다.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목숨을 건 지극한 마음으로 세 번만 암송하면 '지혜의 완성'을 이루어 부처가 된다고 한다. 어떠한 상황이든 진심으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게 되어있다는 뜻일 것이다. 일말의 의심 없이 부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야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딸아이가 부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며 '웃기냐' 했다고 믿는 것처럼, 진심으로 믿는 그 마음은 모든 것을 지혜의 완성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우물을 팔 때 생기는 허공은?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⑰ 공대(空大)의 출처

〈원문〉

"아난아, 허공의 성품은 형상이 없어서 색을 인하여 나타나느니라. 실라벌성에서 강으로부터 먼 곳에 찰제리나 바라문, 비사, 수타, 바라타, 전다라들이 집을 세워 마을을 만들 적에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는데 흙이 한 자 나오면 한 자의 허공(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흙을 한 길(一丈)을 파면 한 길의 허공이 생겨 허공의 깊고 얕음이 흙을 파냄이 많고 적음을 따르나니, 이 허공이 흙을 인하여 나온 것인가? 파냄을 인하여 나온 것인가? 원인이 없이 저절로 생기는가? 아난아, 만약 이 허공이 원인 없이 스스로 생긴다면 파기 전에는 어찌하여 허공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땅만 보일 뿐 빈 구멍인 허공이 생기지 않는가? 만약 흙을 인하여 나온다면 응당히 흙이 나올 적에 허공이 들어감을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흙만 나오고 허공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허공이 흙을 인하여 나온다 하겠느냐? 한 우물을 파면 허공이 한 우물만큼 생긴다고 하나, 허공은 시방에 원만하거늘 어찌 방소(方所)가 있겠느냐?"

〈강설〉

물질적인 형체가 없는 것이 허공인데, 이 허공이 색(色)을 인하여 인식되는 것이다. 실라벌성에 사는 사람들이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할 때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 공대(空大)의 출처를 묻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사성(四姓)의 신분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우물을 팔 때 땅을 파서 생기는 구덩이 공간인 허공을 두고 이것 역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여래장인 미묘한 진여 그 자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사성계급에 바라문이 먼저인데 찰제리(왕족 신분)를 먼저 들었다. 바라타는 바라문에 속하는 신분의 하나다. 바라문 중에서 상위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바라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다라는 수타(수드라)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의 집단이다. 우물을 파는 것이 땅을 파는 것인데 흙을 파낸 것만큼 구덩이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빈 공간이란 뜻으로 허공이라 했다. 깊이 팔수록 커지고 얕게 파면 작다. 흙을 파내어 빈 공간이 생겼으니 이 공간 자체가 흙 때문에 생겼느냐고 묻는다. 파서 허공이 생겼다면 파지 않았을 때는 허공이 없었던 것이냐는 말이다. 또 흙과 허공이 같다면 흙이 나올 때 허공은 왜 안 나오느냐는 것이다. 파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왜 흙이 나오고 나서야 허공을 보게 되느냐 한다. 괭이로 땅을 판다면 괭이는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고, 흙은 땅을 인해 옮겨지니 허공이 무엇을 인해 생기는가? 그렇다고 허공이 오는 데도 없이 스스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 대목에 경의 원문에 '성품은 원만하고 두루하여 본래 동요하지 않는다(性圓周遍 本不動搖)'라는 말이 나온다.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뿐만 아니라. 공(空)·견(見)·식(識)을 합한 칠대(七大)가 성품 자리에서 보면 시방 법계에 꽉 찼다는 말이다. 성은 모두 주변원융(周遍圓融)하다. 그래서 의상 스님의 법성게에서 '법성은 원융하여 상대적 차별이 없다(法性圓融無二相)' 하였다. 다만 각(大)의 성이 법성(法性)에서 점성(點性) 혹은 배성(配性)된다는 말이 〈능엄경〉 소(疏)에 나온다. 점성(點性)이라는 말은 성(性)을 점찍어 준다는 뜻이고 배성(配性)은 성을 배급해 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행(五行)의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각 성(性)이 법성(法性) 안에서는 주변원융(周遍圓融)하지만 법성에서 점성 혹은 배성되어서 각 오행의 성이 나눠진다는 것이다. 사대(四大)나 칠대(七大)도 그와 같이 그 근본은 법성인 여래장묘진여성이라는 것이다. 허공은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멸이 없는 것은 출입이 없고 적멸부동(寂滅不動)인 것이다. '여래장 가운데 성(性)이 각(覺)인 진공(眞空)과 성이 공인 진각(眞覺)이 청정하고 본연하다' 하여 똑같은 맺는 말을 하는데 각(覺)은 체(體)가 되고 허공은 상(相)이 되는 것이라 체를 먼저 말하여 성(性)이 각(覺)인 진공(眞空)과 성(性) 공(空)인 진각(眞覺)이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어미 닭이 알 품듯 한 물건 주시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⑰ 갈비뼈순화와 꼬리뼈순화

중심과 영대의 통로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기운을 명문에 모은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중심의 진동이 영대까지 퍼져나가게 한다. 점차로 중심과 영대가 공명하면서 통로가 형성된다. 반복해서 수련한다.

중심과 영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운의 내왕은 들숨 때와 날숨 때에 서로 다른 경로가 쓰인다. 들숨 때는 중심에서 갈비뼈를 통해 영대로 기운이 밀려나가고, 날숨 때는 영대에서 직선 통로로 중심으로 유입된다. 이 과정에서부터 갈비뼈가 열린다. '옴' 자 발성으로 중심과 영대를 함께 울려주면 영대에 모여 있던 기운이 다시 중심으로 이동해 온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행한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다섯 번째 과정이다.

하단전과 명문, 중단전과 영대 간의 경로를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명문으로 기운을 모은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반복하면 명문의 기운이 영대로 올라와서 중심으로 이동한다. 명문의 기운이 영대로 이동할 때는 농구공만 한 열기 덩어리가 올라온다. 명문의 선천원기가 중심으로 모이면 가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서 가슴바탕에 철벽이 생긴다. 이때부터 갈비뼈 순화를 행한다.

들숨에 영대를 주시하면서 양쪽 갈비뼈를 통해 기운을 등 쪽으로 보낸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영대와 중심을 함께 울려준다. 그러면 기운이 중심으로 이동해온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갈비뼈 순화가 이루어진다. 갈비뼈 순화가 이루어지면서 선천원기도 함께 순화된다. 그러면 열감도 사라지고 거친 성향도 부드럽고 미세하게 변화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중심의 기운을 하단전으로 내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갈비뼈 순화가 이루어지면 4선정을 성취한 것이다.

중심이 철벽을 이루었을 때가 3선정의 상태이고 갈비뼈 순화가 끝나면 4선정을 이룬 것이다. 4선정은 견성오도를 성취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밝은성품이 생성된다. 갈비뼈 순화를 하면서 선천원기의 거칢을 제도해 주는 것이 밝은성품이다. 영대와 중심 사이를 선천원기가 내왕하는 과정에서 밝은성품과 서로 합쳐진다. 갈비뼈 순화를 하면서 견성오도가 이루어지면 심과 식의 추업을 제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다. 그러면서 공무변처해탈과 식무변처해탈, 비상비비상처해탈을 이룰 수 있는 근기를 갖추게 된다. 이후에 진행되는 반신 소주천의 방법은 5선정의 공무변처해탈의 과정이다.

꼬리뼈 순화는 반신 소주천을 운용하면서 꼬리뼈 순화를 병행하는 과정이다. 먼저 중심의 기운을 하단전으로 내려오게 한다. 들숨에 영대를 주시하며, 중심에서 갈비뼈를 타고 영대로 기운을 보낸다. '옴' 자 발성을 하면서 하단전을 울려준다. 중심에서 하단전으로 기운이 내려온다. 중심의 고요함이 하단전으로 확장되면서 배 쪽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꿈틀거림이 생겨나고 진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싸늘한 냉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라도 본성으로 비추어서 제도한다. 그러다 보면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고 둥근 기둥처럼 텅 빈 공간이 생겨난다. 그러면서 아랫배 전체가 후끈한 열기로 채워진다. '옴' 자 발성으로 중심과 하단전이 공명하면 하단전으로 기운이 응집된다. 이때 마치 물속에 비친 달처럼 푸르스름한 빛이 하단전에 맺히게 된다. 이 상태를 "한 물건이 형성됐다"라고 말한다. 들숨으로는 갈비뼈를 순화해주고 날숨으로는 '옴' 자 발성으로 중심과 하단전을 울려주면서 하단전에 맺혀 있는 한 물건에 각성을 집중한다.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한 물건을 주시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⑰ 일체법의 진제

실체는 개념의 세상에는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참과 거짓이라는 주사위를 담고 살아간다. 어떤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속 주사위를 던지게 된다. 그리고 일의 경중에 따라, 그 던지는 시간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누구를 통해 학습하는 일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 안에 내재한 경향성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의 참과 거짓은 '이것'이라고 특정하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기적인 개체의 판단이면서 취향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참일지라도 타인에게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은 참이더라도 나에게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참과 거짓이 사실의 바탕에서 판단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사실의 바탕에서 말한다면, 참과 거짓은 하나의 개념이다. 참 속에 거짓이 있고, 거짓 속에 참이 있다. 참(거짓)과 거짓(참), 이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든 그것은 같은 원리이다. 그리고 사실에서 보면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허구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참(거짓)과 허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참(거짓)은 개체가 보는 개념의 세상이고, 허구는 개체가 보지 못하는 개념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실체는 개체의 개념적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은 무엇이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똑같이 물질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처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 말하는 그 언어의 개념을 받아들이다 보니, 소통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겨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서로가 머쓱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진제(眞際)가 말하는 언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와 모양에 대해 부정과 긍정 또는 한정적 사고나 포괄적 사고에 대해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제는 말하는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밖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밖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들어야 한다. 진제의 언어는 말하는 주체의 불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으로 존재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들을 수 없다. 꼭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체를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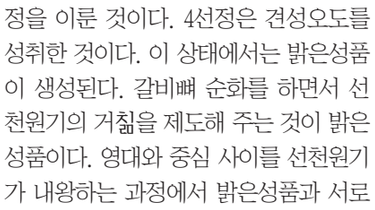
대혜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저 탐진치 등의 심리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이어서 다시 그것들을 떨쳐 내려 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려 하며, 다시 그들에게 있는 자성의 근본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솝우화 중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개' 이야기가 있다.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개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생각하고는 짖는 바람에 자신이 물고 있던 고기를 잃어버린다는 내용이다. 그 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근심하겠지만, 진제의 입장에서는 무엇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근심하는 개체의 입장에서는 그 고깃덩어리가 자신에게서 사라졌으니 잃어버렸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강물에 남아있다. 개체가 사용하는 '있다'와 '없다'는 개체의 상태나 위치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원적인 것을 말하면, 우리가 지칭하는 '나'라는 언어는 사실적인 어떤 대상이 없다. 그런데 그 지칭할 수 없는 '나'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온을 '나'라고 하게 되면, 지칭할 수 없는 '나'의 입에 온전히 있던 그 '고깃덩어리'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항상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은 이 허탈함에서 기인한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오온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진제는 사실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누구 망신?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마이크 소개 : 법당서 스님 마이크와 본사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양손에 염불을 해 볼시 추호라도 광고 내용과 다르면 법당서 누구 망신?....비교시 장난감 성능 차이를 확인

오직! 마이크만 바꿔도 수 천번의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7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34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품은 한때의 악한 생각이
훗날 많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매의 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사찰로 사용 적합

- 경북 영천IC 1분 거리 대도로 분 부지 1,000평
- 건물 140평 정남향
- 불교요양원, 포교당, 사찰운영
- 가액 30억

010-3540-0196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2,0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조정 가능)

010-6449-9552
010-3640-3128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1천 6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농막·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 평수 : 1898㎡당. (574)평
- 용도 : 토굴, 주말농장
- 보전관리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곳, 도로, 골짜기, 전기접
- 가액 : 3,600만원

010-5454-766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대웅전(53평)
- 부속 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957-8089

암자 안내(월세)

- 경남 진주시 정촌면(아울렛 옆)
- 500/40(월세), 권리금은 협의.
- 시내와 IC 모두 5분 거리
- 150평(마당 110평, 건평 40평) 마당 수리함, 주차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646-3385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23길 55 지장사
- 단독 주택, 법당 1, 큰방, 작은방, 화장실 2개
- 전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권리금 1000만원, 40평 안쪽에 마당 있음

010-4844-7098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250평 법당, 요사채, 주차장 70평
- 공찰소임 관계로 급매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536-2587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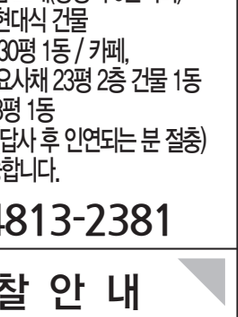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포교원 안내(40년)

- 위치 : 수영 R-Y 부근, 2층 40평
- 법당 : 아미타, 관세음, 지장, 신중, 영단, 소불 200불
- 전세 : 2천/35만원, 사권 2300만원

주지 소임 관계로 급, 즉시 법회 가능

010-9695-1060
051-727-2421

사 찰 안 내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신.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 건 물 : 법당 25평(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1동(실사용), 주차장, 전 · 천오백평 감나무, 자두, 두릅, 나물, 고사리 등 다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포근한 살기 좋은 도량
- 가 액 : 5억, 차량 진입 가능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약 25평,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왕서원
- 주 지 : 홍운, 당호 일각 (속명 : 김영수)
- 주 소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설운장고개길85 천왕서원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법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단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여래불교 조계종(단)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큰서원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책무로 사단공익법인여래불교 조계종 창종을 알리며 본 종단과 함께 펼쳐나갈 전국에 계시는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대 표 이 사 **현담 법오**
총 무 원 장 **덕평**

총회의장 **민호**
총무부장 **설오**
교육원장 **재오**
문화원장 **하담**
포교원장 **문성**
재무부장 **성도**
사회부장 **삼초**
교무부장 **건호**
표교부장 **무진**

입종서류 :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스님 : 총무원장 덕평 스님 **010-6219-4757**
이 사 장 법오 스님 **010-2357-7747**
주소 : 인천 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창대 장터 상가 2층 202호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34호 | 18 | 전면광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부처님 말씀 읽기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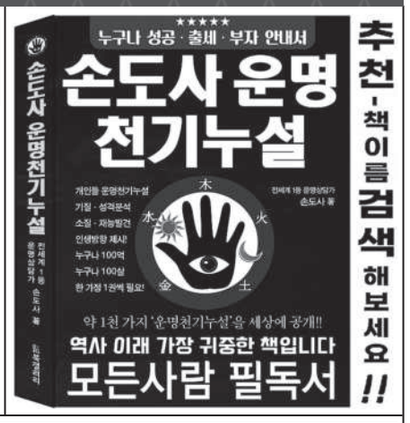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2811-0118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⑧ 무소유(無所有)



‘나’ 찾으면 ‘무소유’ 보일까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고 많이 느껴본 무소유.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느끼는 무소유는 어떤 것일까? 스님의 무소유와 우리들의 무소유,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의 깊이를, 그리고 나와 무소유의 개념,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무소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닮아가는 것? 너무나 깊고 크고 넓고 광대하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참 어렵고도 힘든 일 아닌가. 우리, 이 세상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걸 모르는 사람 있는가? 하지만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모두 가지고 싶다. 그렇게 집착과 욕심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조용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소유욕이란 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을까? 5월이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멋진 계절에 조용히 가까운 산사 찾아서 각자의 마음에 가득 찬 것들 다 버리고 그 속에 ‘나’라는 부처님 모시면 그땐 ‘무소유’가 나를 채우고 있지 않을까?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③1 이승하의 ‘어머니의 은혜’

가이 없는 어버이의 희생

어머니의 은혜-승한 스님께/ 이승하

이 세상의 수많은 여인이여
자식 낳고 얼마 안 되어 죽은 수많은 어머니여
자식 낳으면서 서 말 석 되의 피를 흘린 내 어머니여
여덟 섬 너 말의 젖을 먹여 나를 키운 유모여
그대들의 은혜로 이 세상이 지탱된다

아기를 배어 수호해준 은혜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받은 은혜
자식은 낳고서 근심을 잊은 은혜
젖을 먹여 기른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인 은혜
마른자리는 자식에게 돌리고 자신은 진자리에 눕는 은혜
온몸을 깨끗이 씻겨준 은혜
자식이 먼 길 떠나면 걱정해준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마다않은 은혜
끝없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준 은혜

여인들이여 아이를 낳아보았다고?
그래서 그대는 늙으면 뼈가 텅 비는 것이다
허리가 구십 도로 꺾이는 것이다
여인들이여 아이를 키워보았다고?
남자의 뼈는 희고 고운데
너희의 뼈는 검고 가볍구나
그대들의 믿음으로 이 도량이 유지될 것이다

–이승하 시집, 〈불의 설법〉 서정시학, 2014

민망하게도, 이 시는 이승하 시인이 필자에게 준 헌시다.

이 시를 곱씹어 읽으며 필자는 이승하 시인이 왜 필자에게 이 시를 헌시로 주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어느 날 소리 소문도 없이 속세를 떠난 필자에게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높고 넓고 깊게 여겨서 ‘중[승(僧)]으로 여법하게 잘 살라’고 이 시를 헌시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눈물이 났다. 온 가족 앞에서 필자가 출가한다고 했을 때 긴 침묵 끝에 아버지께서 딱 한 마디 하신 것이 생각난다. “알았다. 잘 해봐라. 중 생활도 잘만 하면 괜찮다”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제수씨들은 눈물을 뚝뚝 떨쳤다. 지금은 흙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두 분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사무친다. 특히 올 연 초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심정은 사무침을 넘어 아직도 그 품에 안겨 젖을 빨던 기억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각설하고, 이 시는 불교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그대로 가져온 시다. 부모님의 〈십대은(十大恩)〉이라고도 한다.

첫째, 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이다. 어머니가 품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다. 둘째, 임산수고은(臨產受苦恩)이다.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다. 셋째,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이다.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다. 넷째, 인고토감은(咽苦吐甘恩)이다.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는 은혜다. 다섯째, 회건취습은(廻乾就濕恩)이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서 누인 은혜다. 여섯째,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이다. 젖을 먹여서 기른 은혜다. 일곱째, 세탁부정은(洗濁不淨恩)이다. 손발이 닳도록 씻어주신 은혜다. 여덟째,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이다. 자식이 먼 길 떠날 때 걱정하시는 은혜다. 아홉째,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이다.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다. 열 번째, 구경인민은(究意憐愍恩)이다. 자식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시는 은혜다.

양주동 박사는 이 〈부모은중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어머니의 마음〉(작곡 이흥렬)을 지었다. 지금도 부르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노래. 〈은중경(恩重經)〉,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불설부모은중경(佛說父母恩重經)〉, 〈불설보부모은중경(佛說報父母恩重經)〉이라고도 부르는 이 경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왕사성의 기수급고독원에서 삼만팔천인의 대비구와 보살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을 거느리고 남방으로 가시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보시고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예배를 올리셨다. 이에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삼계의 큰 스승이요 사생(死生)의 자비로운 어버이시기에, 수많은 사람이 공경하고 귀의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름 모를 뼈 무더기에 친히 절을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비록 나의 으뜸가는 제자 중 한 사람이요,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는 것이 넓지 못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의 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남자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큰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에 남자인 줄 알며, 여인은 붉은 주사와 연지를 곱게 바르고 좋은 향으로 치장하고 다니므로 여자인 줄 알게 되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의 백골은 남녀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제자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보라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경도 외우고 삼보께 예배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뼈는 희고 무거우니라. 그러나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정과 본능을 좇아 자녀를 낳고 기르나니, 한번 아기를 낳을 때 서너 되나 되는 엉긴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 말이나 되는 모유를 먹이기 때문에 뼈가 검고 가볍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아난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껴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어머니의 큰 은덕에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곧 어버이날이다.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를 다시 한 번 읽어도 좋겠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버스 교통사고로
신장 한 쪽과 간 절반 잃어

베트남 유학생 응예틴찐씨, 장기 파열 · 근육 괴사
3차례 대수술에도 생사 불분명…병원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❼ 올바른 마음공부의 길

▶ **한줄 요약**
불법의 근본은 부처님과 함께 하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 부딪쳐 참된 진리를 터득하는 가르침이다.

진정한 깨달음,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우주의 법칙이다. 자연계를 관통하고 있는 법칙을 눈여겨보고 있노라면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법의 참뜻을 깨칠 수 있다. 이 같은 대자연의 법칙은, 진실로 내가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먼저 익혀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무얼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남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꽃밭으로 만들면 복은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올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내가 복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재앙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그런 사람은 사고의 차원이 다르며, 포용의 폭이 넓고 깊어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세계에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소중한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서 깊은 변화를 일으켜 평안히 자리잡게 된다. 적극성과 자주성이 생겨나 참다운 창조의 마음을 싹트게 한다. 진리의 마음은 논리의 세계를 초월한 무한한 마음의 세계를 열어주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만상이 모두 사랑 속에 감싸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자신이 어느샌가 사랑의 화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무한한 우주의 활동을 주해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께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므로, 너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 하노라"라고 하셨다. 불성을 가진 인간은 본래 자유자재하며 완전하고 원만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두기 때문에 한계상황 속에 갇히게 된다. 아집과 탐욕 속에 자신을 가둬둠으로써 속박이 생겨나고 무한한 능력이 닫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무한한 능력이 어떠한 모양을 취하려고 할 때는 자유자재함을 상실하게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의식이 있으면 이것은 그 일 자체의 순수함이 아니다. 그 일을 할때에 오직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는 데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이 잘 되어가니 정말 기쁘고 신기하다는 마음으로 일 자체를 즐기며 그 일을 하라는 뜻이다. 단지 일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 가르침의 뜻이다. 또한 노자의 무사인(無事人)은 불교의 무아(無我)와 비슷한 가르침으로, 일을 하되 그 일에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일을 해나감을 뜻한다.

인간은 '나'라는 아집과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인한 속박 때문에 무한성을 상실하였다. 나에 대한 집착을 끊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번뇌와 망상을 극복하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부처님의 무한한 위신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숫타니파타〉 중에 나오는 부처님의 행복론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며, 일찍이 공덕을 쌓고 바른 서원을 세워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가르침을 들으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세상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이와 같이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자기 신념을 똑바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현실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깨달음 얻으면 장님이 눈 뜬 것처럼 광명의 세계를 걷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걸림이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곧 행복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평상시의 내 생각, 내 마음씀씀이가 어떠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생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만난 것은 묵은 카르마, 곧 업을 청산하고 보다 밝고 새롭게 살기 위함이며, 깨달음이란 늘 깨어 있는 상태이니, 자신의 주위를 늘 살펴보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찾아온 불행을 딛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면 바른 삶의 연륜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의 내면에 어떠한 방해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투철한 자기 질서와 의지가 자리 잡아 가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순간순간 새롭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속세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 법을 향하고 법을 이해한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를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수한 마음의 배움이야 말로 부처님 제자들의 수행방식이다. 부처님께서는 불교명상의 궁극적인 수행으로 '놓아버림'을 가르치셨다. 놓아버림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빈 마음이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다. 악함이 비워지고 지혜가 차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가 함께 해야 한다. 지혜로 생각하고 지혜로 먹는다. 오직 지혜뿐이다.

수행을 하려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수행의 길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더듬으면서 조심스럽게 한곳으로 모아야한다.

계속 더듬으며 찾아나서야 하고 조심스럽게 끌어당겨야 한다.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지도해야 한다고 하셨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의 요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다. 집중력이란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생생히 살리는 것으로 거기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현재뿐이다. 침묵의 세계가 그런 것이다. 지금이 순간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조건이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을 보게 된다. 만물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영원하다. 변화의 속성만큼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무상을 바로 알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물질계의 모든 현상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 모두가 생겨났다가 물거품처럼 스러져 가는 꿈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허망한 경계로부터 탈출하여 참된 의미의 삶을 펼쳐나갈 때 그러한 삶을 해탈의 삶이라 부른다. 해탈의 삶이란 괴로움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또 슬픔이 일어날 때 슬픔이 일어나고 있음을 냉정한 눈으로 응시할 줄을 아는 것이다. 그 같은 상황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인생의 제반 상황을 지혜롭게 관조하고 감정의 흐름에 빠지지 않는 삶을 해탈자의 삶이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견지해야만 되는 삶의 자세는 이러한 해탈자의 자세이다. 해탈의 삶, 열반의 삶은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

불법의 근본은 부처님과 함께 하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 부딪쳐 참된 진리를 터득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내세에만 있지 않고 현실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광명의 세계를 걷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면 무한한 세계를 터득하여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3년 승려연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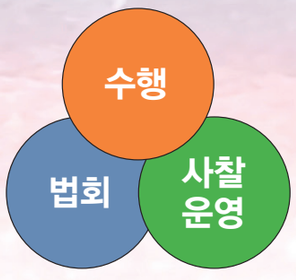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마음과학에 대한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3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농협, 355-0061-8192-63)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행 스님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자기의 보배이며 재산입니다

인과응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질문 불교에서는 윤회와 인과응보를 말하는데 그런 인과응보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는 영원하게 살림살이를 천차만별로 나투면서 화해 돌아가는 이것을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도 나 아님이 하나도 없고, 또 자유스럽게 누가 일로 가라 와라 하는 게 없이, 끄달리지 않고 윤회도 업보도, 또는 아무것에도 끄달리지 않고 내 자유껏…, 여기도 나요 저기도 나요, 내가 아님이 없으니, 내가 어떠한 한 생각을 할 때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한마음에 들리지 않나. 한마음으로 들릴 때에 바로 보이지 않는 데 한 점의 그 우주와 더불어 같이 우리가 한 손에 전부, 한 주먹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깊고 깊은 그 마음을 어느 누구가 알랴 하는 뜻에서 우리는 못 사는 어떠한 혹성이나 어떠한 동네를 위해서, 참,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못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쪼끔 낮추고, 또 이쪽에서 못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게끔 하는 이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어 나가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러나 그건 자기네들이 지어서 자기네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가서 한 번 쳐 두 번 쳐 세 번 치면 이쪽 상대방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은 연쇄적으로 길게 길게 싸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인과응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자꾸 끄달린다면 우리는 개별적인 한 사람과 한 사람, 상대방도 역시 그렇고 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이나 부모지간에 형제지간에도 역시 그런 인과응보가 아주 대대손손 끊임없이 내려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자기는 그저 부지런히…. 또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나쁘게 하고, 아주 나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듣기 좋게 얘기해 주고 속으로만 '그 또한 모르는 그 사람과 내 주인공과 둘이 아니니, 그저 저 사람을 옳게 이끌어 주시오.' 하고서 자기한테다 맡겨 놓고, 또, 착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저거 왜 그래?"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 주려면 바로 그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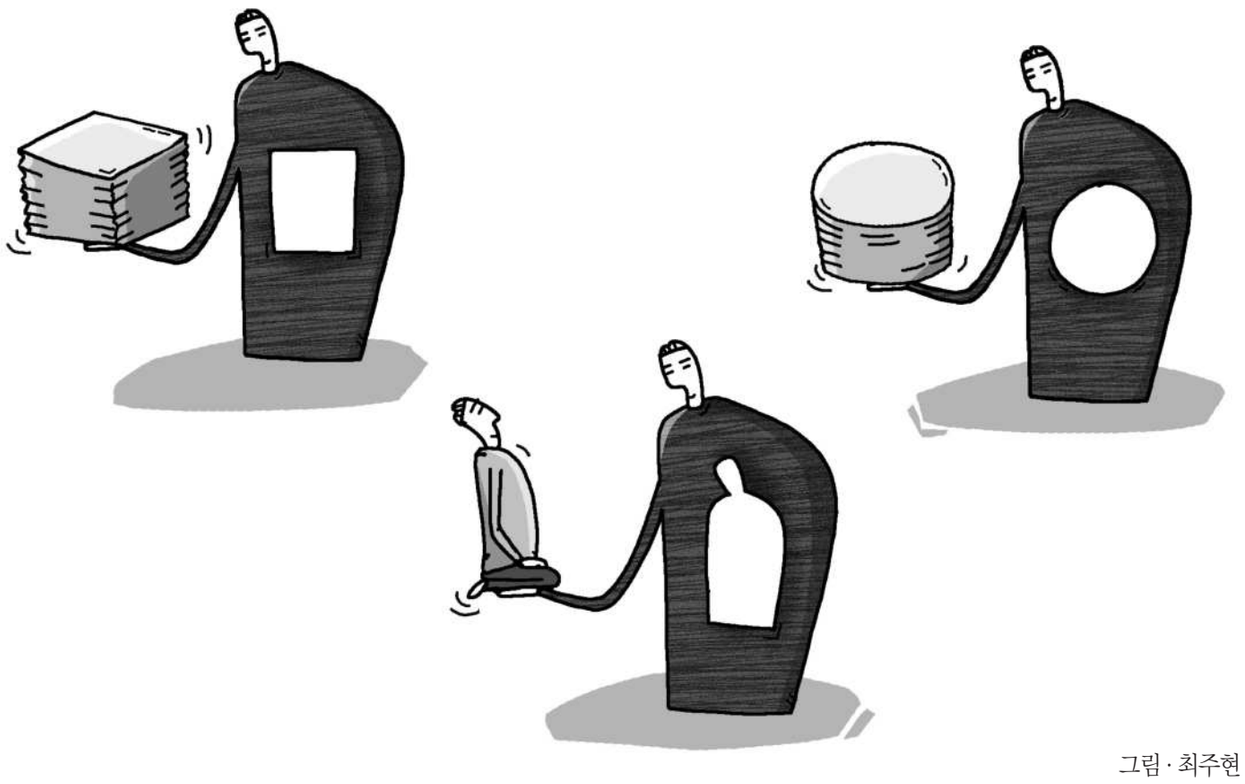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용광로에다가 헌쇠들을 다 집어넣고 모든 것을 다 다시 생산을 해서 내는 것은 물질이지마는, 우리 마음으로는 체가 없기 때문에 무쇠도 될 수 있고 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차원은 누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잘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간 법계에서도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는 스님네들한테도 적합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적합하고 또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합합니다.

어떠한 정승이 있는데, 그 정승한테다가 좀 권세를 지니기 위해서 뇌물을 크게 바쳤답니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고 그 정승한 분만 계셨답니다. 그러니 뇌물을 바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모르죠. 그래서 참, 뇌물을 바치고 나니까 그 정승이 "여보게! 자네가 이 나라에서 쓸 만하다면 자네가 뇌물을 안 바쳐도 능히 쓸 것이 아닌가. 자네가 이렇게 안 해도 자네가 쓸모가 있다면 쫓아다니면서라도 자네를 찾을 걸세. 그리고 또 나라도 힘이 있다면, 바로 자네가 쓸 만하다면 그냥 쓰는 거지 어찌 이 뇌물을 받겠나. 이걸 도로 가져가게, 남이 알면 이거 참 큰일 나겠네." 하니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했거든요. "여보게! 그 말 말게. 자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이 세상천지가 모르겠나. 천지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우주의 근본도 전부 마음의 근본이거늘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모르겠나? 그러니 어서 가져가게. 자네가 차원 얕은 요러한 속임수나 이러한 마음이 없어지는 날이면 당신이 일꾼이 될 것이니 그때 내가 찾음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억만 냥을 갖다가 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공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단돈 천 원이라도 그 도리를 알고 갖다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덕이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초월되고, 어떠한 날짜도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날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날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사계절이 따로 없고, 추워지니깐 겨울인가 보다, 또는 쪼끔 더워지니깐 봄인가 보다, 또는 아, 더우니깐 여름인가 보다 하고 이름을 지어 놨을 뿐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 도리를 모르고 만약에 수억을 시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도리를 아시고 무주상으로 내가 한다면 바로 자기 통장에 자기가 넣는 것이요, 바로 자기 통장에 넣음으로써 지금 가게…, 그 무슨 뭐? 통장 이름도 모릅니다, 나는. 그 뭡니까? 그런 거 이자가 이자, 이자 붙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거처럼 이자가 붙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산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항상 구김 없이 쓰여질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재산을 메고 다녀서 재산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자기의 보배며 바로 재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이 바로 자기의 한 점의 마음이요, 자유인의 그 도구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삶의 질곡을 벗어나기 힘든데

질문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질곡을 벗어나기란 여간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생활고에 시달려 먹고살기도 힘든데 삶이 고가 아니라는 말씀이 야속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고가 아니라고 하는 연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고를 고라고 생각한다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 · 집 · 멸 · 도 사제법에 첫 마디에 고가 있죠? 고 · 집 · 멸 · 도 이렇게요. 그런데 고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냥 사제법이 몰락 타파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라는 거는 없다. 왜?

여러분이 인간 되기 어려운 것도 막론하고 인간으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데 고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인간으로 나왔지만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타파하려고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그 습덩어리를 그냥 몰락 놔 버리라는데, 놔 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父)는 자기 자(子)를 망치로다 모가 난 거를 자꾸 두드리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는데, 손 없는 손으로 다듬어 가면서 걷고 있는데 그게 고라고요?

그게 고라고 생각한다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인간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정법을 수행하면서 마음을 닦아 가면서 계발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왜 고라고

☞ 22면으로 계속



내가 돌이라면 그 돌에서 피가 나오리만큼 진실해야 한다

☞ 21면에서 계속

생각합니까?

밥을 한 끼니 두 끼니 좀 굶으면 어때요, 글쎄. 아니, 새털 같은 날에 쉬지 않고 만날 먹어야 합니까? 쉬지 않고 입고 쉬지 않고 살고 있는데, 구태여 무슨, 헐벗으니까 가난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내 자식 네 자식 내 부모 네 부모 할 것 없이 온통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는 쩔쩔쩔쩔매는 거예요.

언제 적의 자식이고 언제 적의 부모입니까? 우리가 한나절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만이고 한나절 깨어나면 그뿐인 것을. 아침에 잎이 피었다가 저녁 나절에 잎이 지면 낙엽이 져서 땅에 떨어진 걸 여러분이 모두 밟고 다니면서….

그런데 허무하다고 하죠? 허무한 게 아니라 바로 가랑잎이 지고 다시 꽃이 피었다 지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성계가 꿈을 꾸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야, 추운 겨울에 꽃이 피었다가 그냥 사르르르 지고 눈이 오니까 나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무학 대사가 꿈 해몽을 해 주는데 얼마나 잘해 줬습니까? "야, 꽃이 다 떨어지니 열매가 맺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기 달렸지 않습니까? 무한정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무한정이라 생각하는 것도 무한정이죠. 동서남북 벽이 없어요. 지구도 벽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충만해서 서로 당기고 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되고 걸어다니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과학적이 아닌 게 어딨습니까? 하나하나 묘한 도리가, 마음이라는 자체가 벌써 벽을 탁 치면 봇장이 울리게 돼 있어요. 돈 좀 꾸러 갔더니 요리 핑계 대고 조리 핑계 대고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안 주려고 하는 거, 요거 벌써 알아요. 하하하. 그거 아는 놈이 바로 자성의 원력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써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탐지기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컴퓨터와 자동적인 탐지기, 망원경, 천체무전통신기가 나한테 본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 원력이 얼마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글쎄 다른 건 다 잘 알고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한데, 꼭 고거는 그냥 자기가 번연히 알면서도 속는단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 속는 거 보면 이상하단 말입니다. 너무도 잘 생기고 이 세상 현시점에서 둘째가라면 섧다고 하는 분들이 꼭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거 때문에 그냥 막히고 막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막히지 마세요. 이성계가 꿈꾼 거를 무학 대사가 딱 뒤집어서 말해 줬듯이 말입니다. 허수아비 모가지가 문전에 대룽대룽 매달려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허허! 만백성들이 쳐다보고 우러러볼 꿈이로구나." 요렇게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각이 좋으니깐 그냥 생각대로 걸림이 없이 막 간 거예요. 좀 고통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허허허. 그런 고통도 없이 인군을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팔자에 없는 인군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점이란 말입니다. 무학 대사의 마음과 활랑 뒤집어 주는 걸 받은 그 근기, 그것이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가난하다 안 된다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울 힘이 있으면 생각을 잘하는 힘을 내라 이겁니다. 알고 있는 고놈이 일체 만법을 활용할 수 있는 해결사니까요. 해결사란 놈이 고놈이니까 모든 걸 용광로에다 넣듯이 자동적으로 넣으세요. 자동적인 기계가 스스로에게 스스로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다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그까짓 것 뭐, 죽어도 그 솥에 있을 거고 살아도 그 솥에 있을 거 아닙니까, 허허허. 안 그럽니까? 팥죽이 아무리 끓어도 그 솥에 있는 거지 팥물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 그저 죽어도 그 속에 들어갈 거고, 살아도 그 속에 모두 있을 거니까 거기다 다 놓으시고 한 생각 좋게 해서 딱 쳐들어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생산이 돼서 자동적으로 현실로 나와요. 우리가 헌쇠를 넣으면 새 물건으로 생산이 돼서 나오면서 다시 용도대로 종류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다시 나오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50%의 행적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고서야 그 행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우주가 있고 상대가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딨습니까? 나라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겁니다. 나 빼놓곤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다 왜 법입니까? 그리고 이름에다 왜 법입니까? 아니 골 비었습니까, 빌게? 내 이거 주제넘은 소리 같지만요, 주제넘은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성을 그렇게 전부 갖춰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원력자, 해결사를 나한테 두고도 왜 딴 이름을 쳐다보면서 침을 겔겔 흘리고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 낳을 때 낳고 남 생길 때 생겼고 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고 싶어요

질문 제가 키우던 개 한 마리가 병에 걸려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안락사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가 되겠지요?

답변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들어가도 들어가는 사이 없고 나와도 나온 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도 바로 내 한마음의 근본이다 이러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근본이 인간 한 생각, 마음 한 점에 있다는 겁니다, 근본이. 저 태양이 저렇게 밝고 저렇게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태양보다는 못할 거 아닙니까? 왜? 그게 내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근본이 내 근본이에요. 태양이 저렇게 비춰 주지마는 우리의 마음의 그 근본은 어디고, 땅속이고 어디고 비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비로운 도리를 안다면 한 번 철퇴로 쳐서 무명을 벗겨 줄 수도 있는 법이 있고….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예가 간혹 있습니다. 원주에서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원주에 그 뭡니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뼈가 없는 애를 그거를 죽여 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죽이는 거는 아무나 죽이느냐고, 왜 죽이려면 당신이 죽이지 날더러 그러느냐고 했더니 "내가 죽이면 떼 가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떼 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스님은 손도 안 대고 그렇게 안락사로써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으냐 이겁니다. 그때가 열 몇 살인데 키가 이만한 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똥 싸고 그 자리에서 먹여 줘야 하고 하니 그것이 자기 부모 살아 있을 때는 그렇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 그렇게 해 달라 이거죠. 그런 예도 봤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몸을 벗겨 줘서 다시 똑바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죄를 짓고 업을 짓고, 살아가면서 식구들이 다 웃음이 없는 그런 냉랭한 집안을 웃게 할 수 있다면, 웃고 즐기고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자비 아닐까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어떤 거냐고. 물감이 15개라고, 이 세상에 물감이라는 종류는 다 갖다 놓고 어떤 게 진짜냐고 그러면 진짜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게 부처라고요. 그러니 이 물감도 물감이고 이 물감도 물감이니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나만이 물감이니까 내가 제일 아주 진짜 물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들여 주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게 부처님, 여러 그 마음들이 한데 한마음이 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이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울 게 없고 자기에게, 즉 말하자면 자기가 잘했다고 할 것도 없고, 또 잘해서 나왔다고 할 것도 없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 것도 할 게 없고, 남을 또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거기 같이 공했기 때문입니다.

나지만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지만 나예요, 모두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죄 각각이고 모습은 다르지만 어디 다르겠습니까?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럴 테지.' 그냥 이렇게만 넘기면 이 도리는 모릅니다. 내가 한 나뭇덩이라면, 하여튼 뿌리 없는 나뭇덩이라면 그 나무에서 나올 수 없는 나무 덩어리에서 피가 흐를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내가 돌이라면 그 돌에서 피가 나오리만큼 진실해야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살림에다 비유한다면 살림하는 데 때에 따라서는 애가 막 나가서 잘못되는 이치가 있을 때에 붙잡아다 때리기도 하죠. 그거는 사랑이 아닐까요? 잘되게 하느라고. 또 집안의 물건을 사다 놨는데 그것이 전부 망가졌을 때 이것저것 다 부숴 버리고선 다른 걸로 대치하는 것도, 그럼 그거 헐었다고, 부숴 버렸다고 해서 그게 살생일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법 갖다 놓는 것도 법, 죽이는 것도 법 살리는 것도 법, 청소하는 것도 법 청소 안 하는 것도 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이게 청소할 게 있으면 그냥 무심으로서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청소를 안 하고 있었다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청소할 거예요. 누가 하라, 마라 하고 그 법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따로 법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러우면 치우고 치워 놨으면 안 치우고, 깨끗하면 안 치우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똥 마려우면 똥 누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이렇게 편안한 것을….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모르는 분들은 아유, 지금 당장 밥거리도 없고, 당장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장사도 안되고 집도 안 팔리고 이런다고 합니다. "당장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자꾸 빚을 지고 가고 그러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할 때 날더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 고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파리 상해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뿌리를 붙들고 매달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싱싱하게 이파리가 시들었던 것이 생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이파리를 붙들고 앨 쓰고 야단을 하지 말고 뿌리를 붙들어라. 뿌리를 붙들면 이파리는 저절로 싱싱하게 되돌아간다 이겁니다.

> **그 이파리를 붙들고 앨 쓰고 야단을 하지 말고 뿌리를 붙들어라.**
> **뿌리를 붙들면**
> **이파리는 저절로 싱싱하게 되돌아간다.**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해요

질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답변 예전에 부설 거사가 도반 셋이 공부를 하러 가다가 자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의 거를 죽이고야 어찌 뒤에 가서 내가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가 닥치는 게 그대로 그대로거든요. 답답하다 그러는 것도, 우리가 자기가 불을 꺼 놓고 답답한 거지 불을 켠다면 답답하지 않죠. 그래서 불 켜는 것은 거기에 믿고 맡길 때에 바로 불이 켜진 거와 같다 이겁니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캄캄한 방에 불을 꺼 놓고선 꺼진 거를 그대로 '캄캄하다. 그냥 캄캄한 게 다 어떻게 그냥 가 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애원을 하지만 자기가 캄캄한 거를 본 장본인이니까 자기가 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이 환하게 모두 보이고 다 밝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방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밝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놓는 작업을 '그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거기 놨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알고리즘 시대와 불교 지혜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알고리즘 · AI, 예기치 못한 문제 양산
챗GPT '환각 현상'으로 신뢰에 타격
AI채용 아마존은 알고리즘 편향 논란
기술이 객관적, 중립적일 거란 '착각'

추천 알고리즘, 불교의 연기론 보여줘
수많은 클릭들은 삶의 족적이자 업식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선행으로 입력
디지털 공간 속 습관들 재설계해보길

우리는 매일 같이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포털에 접속하면서 한시도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공간을 작동시키는 기술이 공정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아마존은 특정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 끝에 해당 채용 시스템을 폐지했다.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의 이용자를 돌파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 공존의 시대를 성큼 앞당길 것으로 평가되는 챗GPT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들려주는 '환각 현상' 으로 인해 신뢰에 타격을 받고 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술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서 공정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도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은 수십억 명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 그 근저에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이용자의 나이, 성별, 결혼 여부 등과 같은 개인정보와 더불어 클릭 횟수와 체류시간이나 검색 내용과 같은 이용기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가 추천 알고리즘을 위해 활용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증오와 분노, 갈등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주저하지 않고 배치한다. 이용자에게 개인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 운영의 핵심 요소로서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데이터가 없다면 이들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좋아요, 선택 영상, 미선택 영상, 시청 시간대, 영상 시청 기기 등의 가능한 모든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 중의 멈춤, 되감기, 지속 시청 여부도 파악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를 분류하며, 시청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을 같은 그룹군으로 묶는다.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다른 이용자들에 노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용자가 과거에 시청한 이력을 바탕으로 미래 시청 가능한 동영상을 더 노출시키며, 시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출되지 않은 동영상을 파악해 노출한다. 또한 이용자가 특정 채널이나 주제에 대한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시청하는지를 파악해 추천 강도와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용자의 관심 분야가 변화하는지 데이터와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한다.

개인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추천 알고리즘은 결과적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정보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확증편향과 일반화 오류에 빠지게 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이용자는 기술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나 무비판적 수용에 유의하고,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필터 버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내가 입력하고 클릭한 대로 나오는 추천 알고리즘은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론과 인과의 법칙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 업식은 내가 저지른 것을 받는 것이니, 선행에는 선업이 악행에는 악업이 결과로 나온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수많은 클릭은 현실 공간에서 쌓아가는 삶의 족적이자 업식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한 클릭 한 클릭 진중하고, 간절하게 선행으로 입력해간다면, 디지털 공간의 내 삶도 선업으로 가득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은 디지털 삶의 습관과 이용 패턴을 재설계해 봐야겠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백척간두 진일보

요즈음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천하의 명검도 쇠 덩어리를 수없이 연마한 끝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쉬지 않고 연마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선사들이 공부를 할 때는 죽을 각오로 합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선사들의 공부입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 하는 것입니다. 백 자나 되는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줄리어스 시저의 일화 중 하나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을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목적지에 상륙하였을 때 시저는 장병들에게 '해협을 건너 영국까지 아군을 실어 날라다 준 배를 한 척도 남기지 않고 불태워 버려라' 고 지시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다시 해협을 넘어 고국으로 실어다줄 귀중한 배를 한척도 남기지 않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림 · 최주현

시저의 행위가 비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피처를 마련해주면 정신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시저의 선택이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평상시 에너지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이것이 무한한 생명에서 힘을 끌어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막다른 골목은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각오가 대단하더라도 실제로 마음에 유혹하는 도피로가 있으면 각오의 한 구석에 믿는 마음이 있어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전진이 아니라 언제든지 후퇴할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발이라도 움직인다면 그것은 전진이지 결코 후퇴는 아닙니다. 이런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만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곧장 나아가는 것이 정진이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것입니다. 이랬다저랬다, 물러섰다 해서는 결국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의 대가를 지불하면 반의 가치만큼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안으로부터 무한한 힘이 발휘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각양각색 연등 즐기는 5월 '기대'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5월 19~21일, 서울 동국대와 종로 일대에서 성대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연등회이기에 불자 모두가 기쁜마음으로 연등회 준비에 한창이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연등회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규모로 추진된다. 그 어느 해 보다 화려하고 장엄할 봉축행렬에는 약 5만 명이 참가, 10만 연등이 종로를 수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등회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불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전 세계인들이 동참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축제로 거듭났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참여가 연등회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

연등을 밝히는 불빛은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무명(無明)을 걷어내는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시비 분별심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길을 안내하는 진리의 등대이며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다.

연등은 수행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불을 밝혀 어둠을 밀어내는 과정을 상구보리(上求菩提)로 이해할 수 있고, 이어지는 생명과 생명 간의 마음을 나누는 일은 하화중생(下化衆生)으로 거듭난다.

대중이 함께 걷는 연등행렬은 모든 벽과 차별을 허무는 화합의 몸짓이자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하다. 올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기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장엄등이 화창한 5월의 밤하늘을 밝게 수놓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기후와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통받고 있는 생명을 위로하는 장엄등도 공개된다고 하니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리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마애불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동참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위한 한국불교 전체 원력 결집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28일 경주 열암곡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입재법회' 를 봉행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불사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주요 종책 과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조계종은 지난 4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천년을 세우다' 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 을 세워서 '미래 천년' 을 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과거 천년' 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이고, '미래 천년' 은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의 첫 공식 행사는 1000일 기도 입재로, 불사 원만성취의 첫 걸음이기도 했다. 진우 스님이 밝힌대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 입재는 한국불교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며, 사회와 역사와 함께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1000일 기도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참해야 한다.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다. 종단 중흥과 국민행복 시대를 상징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불사가 아름답게 회향되길 바란다. 1300년 만에 우리 앞에 나투신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기도에 많은 불자와 국민이 수희 동참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마음돌봄 치유 늘봄

*늘봄 : 늘 바라보고 늘 돌보면
마음은 늘 봄입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산하 불교상담심리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마음돌봄 치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2023년 마음돌봄 치유사업 “늘봄”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우울감이 심화된 전 국민의 마음치유 필요
- 명상과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의료, 복지, 돌봄, 재난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직군 및 사회취약, 소외계층의 마음돌봄, 나아가 자살예방에 기여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1월**
- 사업내용 : “늘봄” 명상프로그램
  - 불교계 전문 분야인 명상을 활용하여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운영
    마음돌봄이 필요한 곳에 불교명상지도사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해소
- 사업대상 : 전국의 복지, 돌봄, 의료, 재난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 직군 및 사회취약, 소외계층, 정서적 취약계층(자살유가족) 포함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총 4회기 프로그램

회 기	프로그램명	제 목	목 표
1회기	참여하기	지금멈춤	멈추고 참여하기
2회기	깨어있기	온몸관찰	자각과 수용으로 깨어나기
3회기	나눔하기	돌봄나눔	돌봄으로 나눔하기
4회기	무르익기	성장확인	성장으로 무르익기

참여기관 문의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 (☎ 02-737-7378, jabi7378@naver.com)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